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 나타난
초등학생들의 동조 현상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oup Decision Making and Conformit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김 다 원

2020년 8월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 나타난
초등학생들의 동조 현상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oup Decision Making and Conformity

지도교수 류 현 중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김 다 원

2020년 5월



김 다 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정 광 중 인

심사위원 김 은 석 인

심사위원 류 현 중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3. 선행 연구의 검토	8
II. 이론적 배경	10
1. 동조의 의미	10
2. 동조의 원인	11
3. 동조의 표현 양식	16
III. 집단 의사결정에 나타난 동조 특성	19
1. 9월 20일 다모임에 나타난 동조	19
2. 9월 23일 다모임에 나타난 동조	22
3. 9월 24일 다모임에 나타난 동조	33
4. 9월 27일 다모임에 나타난 동조	41
IV. 동조 이해에 대한 논의	51
1. 동조의 해석	51
2. 동조와 침묵의 관계	53
3. 주제에 따른 동조의 경향	57
4. 동조 결과에 대한 인식 차이	58

V. 결론	60
참고 문헌	64
ABSTRACT	68
부 록	70

표 목 차

〈표 I-1〉 연구 참여자 특성	4
〈표 I-2〉 연구 대상인 학급 다모임의 주제와 주요 내용	6
〈표 I-3〉 자료 수집 및 해석 과정	7
〈표 III-1〉 9월 20일 다모임에서의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	20
〈표 III-2〉 9월 24일 다모임에서의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	33
〈표 III-3〉 6학년 경기 2순위 정하기에서의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	37
〈표 III-4〉 9월 27일 다모임에서의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	42
〈표 III-5〉 9월 27일 두 번째 다모임에서의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	47

그림 목 차

[그림 II-1] Asch의 선분비교과제	12
[그림 IV-1] 동조가 일어날 때의 입장 변화와 동조의 표현 양식	55

국 문 초 록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 나타난 초등학생들의 동조 현상

김 다 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지도교수 류 현 중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동조 현상을 분석하여 동조가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D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사결정 사례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조를 분석하여 동조 이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동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학생들은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비교하여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넓힌 결과로서 동조했다. 둘째, 학생들은 최종 의견을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동조했다. 셋째, 학생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동조하기도 했다. 넷째, 학생들은 스스로 또래의 눈치를 살피거나, 동조를 원하는 분위기를 직접 느껴 동조 반응을 보였다. 다섯째, 집단의 주 의견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의견을 지지하지만, 전략을 가지고 주 의견에 동조하기도 했다. 여섯째, 학생들은 다수의 강요로 의견을 정하는 것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의견으로 동조하기도 했다. 일곱째,

제시된 의견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동조를 유도하기도 했다. 여덟째, 절실한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학생들은 쉽게 동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동조 특성이 동조 이해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조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조를 ‘인식의 변화에 따른 선택’과 ‘주체적 판단의 결과’로 바라보면, 동조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다. 둘째, 동조는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개인은 최종 결정된 의견의 내용에 동의하여 동조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조하기도 한다. 셋째, 개인의 침묵이 동조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관된 동의 표현이거나 무사유의 상태를 보여주는 침묵은 동조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 의사결정 해야 할 주제에 따라 동조는 다르게 나타난다.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황을 다루는 주제의 경우, 다른 의견에 따르는 것을 승패의 문제로 여겨 동조하지 않으려 한다. 최종 결정된 의견이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의 경우, 개인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동조하지 않으려 한다. 다섯째, 의사결정에서 동조한 학생들은 적합한 결과나 정당한 절차를 기준으로 삼으며 동조 결과를 판단한다. 적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견의 내용’을, 정당한 절차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사결정의 ‘절차’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조를 분석하여 동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가 교사들과 학생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개인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집단 의사결정, 동조, 침묵,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변의 판단과 결정에 동조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사전적 의미는 ‘친구를 좋아하면 먼 곳이라도 피로를 잊고 따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할 때를 일컫는 데 쓰인다. 친구를 따라 길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나 함께 가기로 결정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동조하여 강남에 갔다는 결과’만 주목한다면 전체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 따로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정하는 대로 마음을 바꾸어 똑같은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기 시간과 식사 시간을 줄이거나, 일행이나 식당 주인을 배려하기 위한 동조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어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자신의 한 표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동조일 수도 있다.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동조’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나, 동조를 바라보는 관점을 추측할 수 있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5~6학년군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은 일상생활의 의사결정을 다루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서 대화, 타협, 소수 의견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교육부, 2015, pp. 45-46). 여기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은 언어적인 의사 표현을 전제로 하며, 자기 의견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대화와 타협의 결과, 구성원들은 다른 의견에 동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조의 경우 집단의 주 의견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하게 된다. 침묵하며 동조하는 집단 구성원의 입장은 소수 의견 존중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동조와 관련한 이론적인 이해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다루는 사회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와 집단 규범에 동조하려는 태도 사이의 관계(신흥임, 2017), 문화와 동조의 관련성(조공호, 김은진, 2001), 유교주의 사회의 문화 내에서 사회 압력으로 작용하는

집단 동조(나은영, 1995)를 분석한 연구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조가 일어난 맥락과 동조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을 다룬 초등 사회과 분야의 연구들에서 동조나 침묵은 주목받지 못했다. 주로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분석하거나 의사결정 능력 신장을 다루었고, 학생들의 발화 장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전희옥, 2007; 고훈석, 2009; 배진숙, 2009; 오연주, 2010).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어 동조할 때, 개인의 입장 변화가 발화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동조에 주목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동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나타난 동조의 의미를 재개념화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조의 의미, 동조의 원인, 동조가 표현되는 양식을 정리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조의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조가 갖는 의미를 서술한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동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를 활용했다. 학생들의 동조 반응과 동조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담임을 하고 있는 학급의 의사결정 상황을 사례로 동조를 분석하였다. 관찰, 면접, 학습 결과물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사례

에 나타난 장면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 장면들을 분석·해석하였다(Creswell, 2015, pp. 125-129). 본 연구의 참여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2019년 담임을 맡았던 D초등학교 6학년 학급의 전체 학생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D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75명(2019년 기준)이었고, 각 학년 당 한 개의 학급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교였다. 연구자는 6학년 담임교사로서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으며,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을 동시에 하였다. 학급의 전체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하므로, 학급 내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체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성격 및 성향 외에 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학급 학생들 대부분은 1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총 6년간 같은 학급에서 학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 비슷한 집단의 성격을 유지해오며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해왔다. 공고히 유지해 온 집단과 친숙한 구성원들이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학급 학생들은 지난 4년 간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다모임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다모임은 D초등학교의 집단 의사결정 기구이며, 학생들이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학생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다모임의 취지나 목적, 진행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학습 상황에서의 발언 빈도, 성격 특성, 생활 태도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I-1>과 같다.

<표 I-1> 연구 참여자 특성

이름 ¹⁾	성별	특성
강미연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말하는 데에 신중한 편이며 학습 상황에서 발언 빈도가 낮음.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 상황에서 웃음, 끄덕임 등 비언어적 행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 교사의 질문에 답할 때에 오랜 시간을 들여 생각하나,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단어로 말하는 경우가 많음. - 글로 표현하는 활동에서 맥락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을 보임.
백준경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상황에서 발언 빈도가 낮음. 교사의 질문에 '모르겠다',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등의 반응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임. - 글로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냄. - 일상 대화 상황에서는 비교적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는 말과 행동도 자주 함.
박혜지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임. 단어로 답을 하고 난 직후, "아, 아니다"와 같은 문장을 이어 말함. 자신의 생각과 답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 글로 표현하는 활동에서도 맥락에 맞게 완성형 문장으로 답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임. - 학급 친구들과 어울리긴 하지만,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음.
김소희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상황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로 잘 표현함. 하지만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질문이나 발언을 하지는 않음. - 일상생활에서는 전체 학생들과 고루 잘 어울리며,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다른 학생들에게 잘 표현함.
이정혁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상황에서 수업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궁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물음. - 학급 내에서 발언 빈도가 높은 편이고, 교사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는 모습을 보임. - 평소 장난스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체 학급의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오동협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상황에서 교사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함. - 독서를 즐겨하고 배경지식이 풍부함. 수업 내용과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상황에 알맞게 말함. - 모둠활동이나 전체 활동에서 주로 사회자 역할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연구 참여자들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데 학생들의 학급 다모임 장면
에 초점을 두었다. 다모임은 D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사결정 기구로, 전교생이 모
여 주제에 관해 토의하는 전체 다모임과 학급 내에서 동 학년 학생들끼리 토의하
는 학급 다모임으로 나뉜다. 전체 다모임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학급 다모임을 열
어 동 학년 학생들끼리 의견을 공유한다. D초등학교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최종 의견을 정할 때 투표나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대립되는 의견의 절충안을 마
련하거나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급 다모임에서 학년 의견을 정한 뒤,
전체 다모임에서 학년별 의견을 공유한다.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간
제약으로 전체 다모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학년별 학급 다모임
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다모임을 작은 다모임(학년별 대
표 모임)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서로 의견이 대립하거나 결정이 어려울
때, 학급 다모임을 여러 번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 장면으로서 학급 다모임을 선정한 이유는 학급 다모임은 상호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동조가 일어나는 맥락을 살펴보기에 적합
한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학급 다모임에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질의응
답하면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학급 다모임 장면에서 학생들
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중점적으로 살필 수 있으며, 최종 의견을 결정할 때
각 학생들의 입장 변화와 동조가 일어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다.

2) 연구 과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9년 9월에 이루어진 총 4번의 학급 다모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급 다모임 주제와 주요 내용은 <표 I-2>와 같다.

1)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제시하였다.

<표 I -2> 연구 대상인 학급 다모임의 주제와 주요 내용

일자	주제	주요 내용
2019. 09. 20.	운동회 학생 경기 종목 정하기	· 전교생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미션 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생 종목 정하기 → 6학년 의견은 ‘홀라후프 릴레이’로 정함. ※경쟁을 지양하고, 배려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운동회를 기본 원칙으로 함.
2019. 09. 23.	운동회 학생 경기 종목 정하기	· 학년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제시된 의견들의 장단점 등을 논의하여, 학년별 의견을 새로 보완하여 정하기로 함. → 6학년 의견은 ‘가위바위보 끝판왕으로 전체 한 줄을 만든 뒤, 홀라후프 릴레이하기’로 정함.
2019. 09. 24.	운동회 학생 경기 종목 정하기	· 학년별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년별로 따로 경기를 진행하기로 함. ‘각 학년이 따로 경기를 진행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성공하는 것’을 학생 종목으로 정함. · 6학년 경기 종목 정하기 → ‘제한시간 안에 6인 7각으로 목표지점 통과하기’로 정함.
2019. 09. 27.	‘도망가는 바구니’ 학생 대표 정하기 / 2학기 월 대표 정하기	· 운동회 종목 ‘도망가는 바구니’에 참가할 학생 대표 정하기 → 사다리타기를 통해 이정혁 학생으로 정함 · 2학기 월 대표 정하는 방법 논의하고, 2019년 10월~2020년 1월 월 대표 정하기 → ‘원하는 학생’, ‘이제까지 전체 다모임 진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으로 정함.

9월의 학급 다모임은 주로 전체 다모임을 실시하기 전, 학년의 의견을 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되었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다모임의 주제는 ‘운동회 학생 경기 종목 정하기’였다. 운동회 학생 경기 종목 정하기와 관련한 학급 다모임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운동회 학생 경기 종목과 관련하여 학년별 의견을 모으고, 작은 다모임(학년별 월 대표 다모임)을 거쳐 다시 학급 다모임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운동회 관련 마지막 학급 다모임에서는 운동회 종목(도망가는 바구니)의 학생 대표 선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해석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는 Creswell(2015, p. 226)이 제시한 방법을 참고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수집부터 해석에 이르기까지 절차는 <표 I -3>과 같다.

<표 I -3> 자료 수집 및 해석 과정

연구 절차	주요 내용
자료 수집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의사결정 관련 수업 계획 수립 및 실행 · 학급 다모임 참여 · 관찰 · 관찰 기록 및 녹음 전사자료 정리 · 면담 계획 수립 및 실행
연구 일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일지 작성 · 연구자로서 연구 목적에 유의미한 장면 선정 · 동조와 관련한 관찰 내용 정리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기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다모임 사례 기술 · 학생들의 동조 사례 기술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분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20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7일’ 등 다모임 시기별로 구분 · 다모임에서 나타난 학생의 의견 변화 과정, 학생들끼리 대립했던 의견 내용, 면담을 통해 확인한 개인 의견, 학생 개인 성향 등을 중심으로 동조 양상 분류
자료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간행물 등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동조 해석
자료 제시와 시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조에 대해 해석하고 이해한 결과를 제시

연구를 위한 자료는 연구자가 참여 · 관찰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녹음 자료, 관찰 기록, 면담을 통해 수집했다. 학급 다모임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발언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여 정리했다. 학급 다모임을 관찰하며 발언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와 맥락을 기록했다. 학급 다모임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은 학생 개인의 생각은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 학생들의 동조 양상을 다모임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학급 다모임에서 나타난 학생의 의견 변화 과정, 학생들끼리 대립했던 의견 내용, 면담을 통해 확인한 개인 의견, 학생 개인 성향 등을 중심으로 동조 양상을 분류하고 해석했다.

본 연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

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심의를 받은 뒤 연구를 수행했다(접수번호 2019-015, <부록 1> 참고).

3. 선행 연구의 검토

본 연구자는 집단 의사결정에서의 동조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연구에 주목하였다.

첫째, 개인 의사결정과 집단 의사결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배진숙, 2009). 집단 의사결정을 개인 의사결정과 비교하여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보고, 대화 상황을 토대로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 양상들을 분석하였다는 점이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타인의 결정이 자신의 결정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종 선택이 개인의 선택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개인 의사결정은 개인의 선택 의도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단독적 선택 논리가 적용되지만, 집단 의사결정에서는 개인의 선택 의도와 다른 선택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호의존적 선택 논리가 성립한다. 또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자라고 불리는 의사결정의 진행자가 나타나며, 집단 구성원 간 조력과 공유, 주장과 설득, 갈등과 반박, 회피와 방관 등 집단역학의 국면들이 나타난다(배진숙, 2009, pp. 188-191). 이 연구는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집단 내 다른 구성원의 영향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보여주며,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입장과 태도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사회과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이 침묵하는 요인들을 밝힌 연구이다(오연주, 2010). 토론 수업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찬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토론 수업을 분석하는 연구는 참여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 주목하다보니 침묵하는 학생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토론학습에서 침묵하는 태도가 학습자의 적극적인 선택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오연주, 2010, p. 124)에서 의미가 있다. 소극적 학습자를 개념화 할 때 학습자 내면의 심리적 상황을 고려하였지만, 개인이 발언하지 않는 이유나 발언하지 않는 학생의

태도가 집단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 등을 다루지는 않았다.

셋째, 침묵을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침묵 행위의 이유와 결과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이성민, 2008; 김인택, 2015; 이채린, 김세현, 허태균, 2015). 이 연구들은 침묵을 의사소통 방법 및 수단으로 인정하며 의사소통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발언하지 않는 참여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동조가 침묵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개인의 기억에 의지하여 침묵의 의미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침묵하게 된 배경이나 침묵이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 장면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 양상을 동조 반응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동조 반응을 보인 이유, 동조가 집단 의사결정에 끼친 영향,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조와 침묵의 의미와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동조의 의미

개인은 문제 상황에서 각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갖는다. 의사결정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 외에도 타인의 말과 행동, 집단 규범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다. 외부의 권유나 압력이 없더라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둘러싼 요소들을 고려하며 의사를 결정한다. 개인 의사결정을 할 때보다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된다. 집단 의사결정은 구성원 간 타협과 의견 조정의 과정을 거치므로, 개인의 의도대로 최종 선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구성원의 의견이 자신의 원래 의견과 다를 경우, 개인은 때때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다른 의견을 지지하는 선택을 한다. 이처럼 ‘집단의 규범이나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 판단, 행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개인이 자신의 의견, 판단, 행위를 변경하는 것’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동조(conformity)’라고 한다(Forsyth, 남기덕 외 역, 2009, p. 185).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동조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 하나는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견이나 행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서 동조(同調)는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것’을 뜻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 사전적 의미에서는 다른 의견에 보조를 맞추는 속성만 드러난다. 이에 비해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집단의 규범이나 타인의 의견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의견이나 행위를 바꾸는 것에도 주목한다. 연구자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동조를 바라보고자 한다. 개인이 집단이나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의견과 행동을 바꾸어 결정하는 이유를 규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동조를 ‘집단의 규범이나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 또는 판단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개인이 자신의 의견 또는 판단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동조를 이와 같이 정의할 때, ‘응종(compliance)’이나 ‘복종(obedience)’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응종’은 개인이 타인의 명시적 요청이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말한다(강준만, 2017, p. 521). 의사가 진찰 후 환자에게 지시를 내렸을 때 환자가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나, 도와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외판원의 구매 요청에 응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 등이 응종의 예에 해당한다. ‘복종’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의 명시적인 명령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명령에 따르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동조’는 타인의 명시적인 부탁이나 명령 없이도 개인 스스로 압력을 느끼거나 판단하여 타인의 의견에 따를 때 일어난다. 따라서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준 요인이 분명히 드러나는 응종이나 복종과 달리, 동조는 이 요인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개인은 집단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동조 반응을 보이며 개인의 동조는 집단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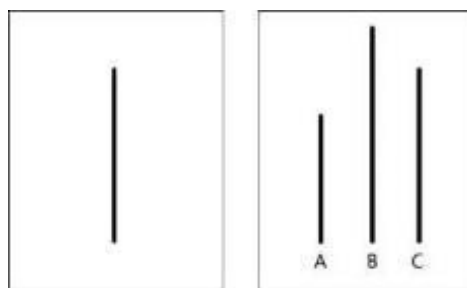
2. 동조의 원인

동조의 원인은 크게 ‘규범 영향’, ‘정보 영향’, ‘대인 영향’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동조의 원인들을 동조 이론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규범 영향으로 인한 동조

사람들이 집단의 규범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계속해서 따르려는 경우에 동조가 일어난다. 이를 ‘규범 영향으로 인한 동조’라고 한다. 규범 영향으로 인한 동조는 집단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다. 자신의 신념을 숨기며 다수 의견에 따르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집단 구성원은 자신의 신념을 집단의 규범과 일치시켜야 하고, 집단의 규범에 조응하는 맥락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된다. ‘Asch의 선분비교판단 과제’와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은 이와 같은 동조 원인을 잘 설명해준다. 선분비교판단 과제에서 개인은 집단의 다수 구성원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다수 의견을 따르며 동조한다.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집단의 의견과 분위기를 탐색하며, 그 결과 동조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집단에 속하며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독립적인 주체로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은 본능적으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소속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집단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드러내려는 개인성의 가치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동조성의 가치 사이의 긴장상태에서 살아간다(Aronson, 박재호 역, 2014, p. 42). 개인의 동조 반응과 다수 구성원의 영향력 사이의 관계를 밝힌다는 점에서 많은 동조 연구들이 Asch의 선분비교과제 연구에 주목한다.



[그림 II-1] Asch의 선분비교과제

주. 출처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 7) Asch, S. E. 저. 1956. 미국: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sch는 [그림 II-1]에 제시된 두 개의 카드를 보고, 오른쪽 세 개의 선분 중에서 왼쪽 선분과 같은 길이의 선분 C를 골라 답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실험 참가자 중 실험 대상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실험 협조자였다. 실험 협조자들은 실험 대상자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오답을 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초반 몇 번의 시행에서는 실험 협조자 모두가 정답을 말하도록 했다. 이후 시행에서 실험 협조자들이 전부 오답을 말할 때, 실험 대상자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관찰했다. 실험 대상자의 23%(123명 중 28명)는 실험 협조자의 답에 동의하지 않고 정답을 말했으며, 대상자의 73%(123명 중 95명)는 실험 협조자의 말을 그대로 따르며 틀린 답을 말했다(한규석, 2013, p. 445). 이전 시행에서 실험 대상자들

은 한 번도 틀린 답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실험 대상자들이 주어진 선분 C를 답으로 정확히 지각했지만 동조하여 오답을 말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은 집단에 속한 개인이 의사결정이나 선택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수의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동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sch의 연구에 참여한 집단은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임의의 집단이다. 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나 소속감, 신뢰감을 가질 만한 유대 관계가 없더라도, 개인은 타인의 의견과 집단의 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은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 구성원들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의사 표현을 결정하는데 무엇을 고려하게 될까?

노엘-노이만(Noelle-Neumann)은 개인의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했다(정다운, 정성은, 2018, p. 102). 노엘-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자신이 가진 신념이 다수 신념들과 같은지 다른지 평가하기 위해 자신의 환경을 끊임없이 관찰한다(권혁남, 2018, p. 62).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의견이 현재 다수 의견이거나 미래에 다수 의견이 될 것으로 지각할 때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다(Noelle-Neumann, 1974; 권혁남, 2018, p. 64에서 재인용). 하지만 자신의 견해가 소수 견해이거나 소수 견해가 될 것이라고 파악한 개인은 고립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개인은 침묵을 선택하여,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Noelle-Neumann, 김정숙 역, 2016, p. 32).

Asch의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의 결정은 개인이 혼자 고립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신이 남들과 다른 의견을 갖거나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소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소수에 속한다고 해서 고립의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의사표현을 억제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 입장을 지닌 개인은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 다수를 향해 소수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변상호, 2015, p. 147). Asch의 연구의 실험 협조자들이 오답을 말하는 상황에서 실험 대상자들의 23%가 자신의 답(정답)을 고수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나. 정보 영향으로 인한 동조

어떤 상황에서는 동조가 가장 합리적인 반응일 수 있다. 한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며 의지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동조를 ‘정보 영향으로 인한 동조’라고 한다. 정보 영향으로 인한 동조는 다수의 의견이 자신의 견해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 타인이 지닌 지식의 가치를 자신의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할 경우 유용한 지식을 배울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조한다(장대익, 2017, p. 203).

‘편승 효과’와 ‘사회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서 동조 원인을 이와 같이 설명한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론 분위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해당 의견을 지지하게 하는 유인책이 되기도 한다. 선거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를 더 지지하게 되는 ‘편승 효과’를 예로 들 수 있다(강준만, 2017, p. 524). 편승 효과는 여러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실들이 정보가 되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려 준다. 또한 개인은 타인과 소통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과 범위를 확인하여 정보를 마련하기도 한다. 개인은 명백한 해답이 없는 질문을 해결할 때, 자신이 가진 정보만으로는 질문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느낀다. 사회 비교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적극적인 정보 처리자로서 자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비교하며 자신들이 가진 신념의 정확도를 평가한다(Forsyth, 남기덕 외 역, 2009, p. 204).

편승 효과와 사회 비교 이론은 집단이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의사결정을 위해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조가 나타난다는 점을 알려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편승 효과에 따르면 동조자가 참고하는 정보는 후보자의 지지율인데, 이는 유권자의 의사결정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척도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동조자는 타인의 의견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의사결정 결과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다수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의사결정이 기대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집단 여론이나 타인의 의견이 의사결정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인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지지하는 의견을 따르면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보다 적합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동조하게 된다.

침묵의 나선 이론이 개인이 자신의 의사 표명을 결정하기 위해 여론 분위기를 살핀다는 점을 보여준 것과 같이, 편승 효과도 여론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이론 모두 개인이 집단의 여론을 살피며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두 이론은 개인이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을 살피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한다.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는 개인이 고립을 피하고자 여론 분위기를 살핀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편승 효과는 개인이 여론을 살피는 이유를 주류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본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의견은 많은 이들로부터 검증의 과정을 거쳐 인정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규범 영향으로 인해 동조하는 경우, 구성원들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다른 의견을 지지하며 자기 의견을 나타낸다. 정보 영향을 받아 동조하는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대인 영향으로 인한 동조

집단 구성원들이 동조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동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대인 영향으로 인한 동조’라고 한다. 대인 영향으로 인한 동조는 다른 구성원들이 동조 반응을 장려하는 한편, 비동조가 발생할 가능성을 저지하거나 비동조를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다(Forsyth, 남기덕 외 역, 2009, p. 209). 집단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집단 정체성이 공격 받는 상황을 경계하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비동조자에게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Forsyth, 남기덕 외 역, 2009, p. 213).

대인 영향으로 인한 동조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또래 압력’ 이론이 있다.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은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도 계속해서 다른 구성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낀다. 개인이 또래로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사고해야 한다고 느끼는

압력을 ‘또래 압력’이라 한다(이인태, 2016, p. 308). 이는 또래 집단이 요구하는 바나 가치 규범에 동조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한세영, 2009, p. 120).

침묵의 나선 이론, 편승효과, 사회 비교 이론 등은 동조자의 자발성에 의해 동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또래 압력 이론은 강제성에 의해 동조가 나타나는 측면을 보여준다. 또래 압력 이론에서 설명하는 동조와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설명하는 동조는 개인이 집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동조가 나타난다고 한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동조 여부를 정하지만, 또래 압력 이론에서는 비동조를 허용하지 않는 집단의 분위기로 인해 개인이 강제성을 느끼며 동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조를 요구하는 또래 압력이 작용하는 집단은 비동조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또래 압력을 느끼는 개인은 집단의 의견에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고, 집단의 가치 규범과 다른 구성원의 행동에 맞추어 동조하게 된다.

또래 압력이 작동하여 비동조를 허용하지 않는 집단 의사결정이 지속될 경우, 집단사고(groupthink)가 나타날 수 있다. 집단사고는 집단 내부에 만장일치의 분위기가 팽배할 때, 개인이 다른 대안을 현실성 있게 평가하려는 동기가 억압되면서 생기는 사고의 양식이다(Forsyth, 남기덕 외 역, 2009, p. 383). 집단사고는 비판을 금기시하며 규범을 깨는 사람에게 압력이 가해지는 분위기에서 일어나기 쉽다(나은영, 2015, p. 296). 규범을 깨는 사람에게 압력이 가해지는 분위기에서는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에만 열중하여 여러 방향으로 대안을 탐색하지 못한다. ‘공연히 굽어 부스럼을 만드느니,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즐기자’는 생각이 집단 내에 팽배하게 된다(Forsyth, 남기덕 외 역, 2009, p. 385). 또래 압력에 의한 동조는 다른 대안을 평가하려는 동기가 더 이상 발휘되지 않게 하고, 다른 의견에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의견을 바꾼다는 점에서 집단사고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3. 동조의 표현 양식

의사소통은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로 이루어진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개인은 주로 음성언어를 활용한 언어적 행위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개인은 다른 구성원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도움을 주는 말을 하

며 동조한다. 또한 개인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해와 반응을 드러내기도 한다. 비언어적 행위란 신체 기관, 상징물, 공간물, 시각물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한다(장영희, 2006, pp. 43-44). 동조는 눈짓, 끄덕임, 무표정, 침묵 등 비언어적 행위로도 표현된다. 비언어적 행위는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한상원, 1994; 김인택, 2015, pp. 453-455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거짓으로 누군가 속이기 위해 한쪽 눈을 깜빡이는 행위와 이성을 보고 관심을 표하기 위해 한쪽 눈을 깜빡이는 행위는 그 의미가 다르다.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하므로 비언어적 행위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여러 양식으로 표현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적 정의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있음’을 뜻하는 침묵(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양 문화권에서 침묵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윗사람에 대한 존중, 상대방의 제안 및 의견에 대한 동의 혹은 수긍, 친밀한 관계에서 신뢰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Yuan, 2015; 이채린, 김세현, 허태균, 2015, p. 203에서 재인용). 특히, 한국어 공동체의 언어문화는 침묵문화(김인택, 2015, p. 474)라고 할 정도로 침묵을 중시한다. 침묵을 중시하는 풍조는 속담, 관용어, 금기 등에 잘 나타난다. ‘입이 가볍다’/‘입이 무겁다’, ‘말이 많다’/‘말이 적다’ 등과 같은 관용어 짝에서 상대적으로 ‘입이 무겁다’, ‘말이 적다’의 표현을 긍정적인 것으로 수용한다. ‘눈은 뜨고 있어도 입은 다물어야 한다’, ‘범은 가죽을 아끼고 군자는 입을 아낀다’, ‘장님 노릇은 말아도 병어리 노릇은 하랬다’와 같은 속담은 모두 침묵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인다. 침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장려한다. 말을 줄이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석한다(장영희, 2006, p. 46). 이 문화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학교 현장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과 담화에서는 침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침묵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침묵하는 구성원은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며 드러낼 의견이 없다고 해석한다.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각자 발언하며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침묵은 발언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개인이 생각을 가지

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둘째, 침묵하는 구성원이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아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해석한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성원이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할 경우,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의 내용과 범위를 맞추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때문에 침묵은 의사결정을 진행하는데 비협조적인 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침묵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나타난다. 개인은 상대방의 발언에 당황했을 때나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불편할 때 침묵하기도 한다. 자신의 발언으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침묵하기도 한다. 또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기도 한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동조 반응으로 나타난 침묵이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준다. 첫째, 침묵은 '집단의 압력이나 타인의 권위로 인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이채린, 김세현, 허태균, 2015, p. 201). 개인은 주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주변의 분위기와 여론을 파악하여 자신의 의견을 침묵으로 숨기고 동조하기도 한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여론이 개인의 침묵과 동조의 기반이 되며, 여론 이면에는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침묵은 '집단의 압력이나 분위기로 인하여 개인의 입장이 다른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바뀐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집단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견이 가진 한계를 느끼거나, 다른 의견이 가진 장점을 파악한다. 개인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견이 집단의 주류 의견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 쪽으로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의견을 지지하고 동의하는 입장으로 바뀌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조자의 의도와 입장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동조의 의미와 원인, 동조의 표현 양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조의 특성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Ⅲ. 집단 의사결정에 나타난 동조 특성

D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다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다모임에서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문제나 주제를 논의한다. 이 장에서는 네 번의 다모임에서 나타난 동조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9월 20일 다모임에 나타난 동조

가. 미연: 다른 의견에 동의하여 동조

2019년 9월 20일 다모임의 주제는 ‘운동회 학생 경기 종목 정하기’였다. D초등학교의 운동회는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배려와 협력을 추구한다.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위축되거나 적대감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방식이다. D초등학교의 운동회는 학부모와 학생 간 대결 구도로 진행되며, 같은 팀 구성원들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로 구성된다. 학생들만 참여하는 학생 경기도 있다. 전체 다모임에서 학생들이 논의하여 학생 경기 종목을 정한다. 학생 경기는 공동의 목표를 시간 내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급 다모임은 전체 다모임에 참여하기 전, 6학년 의견을 정하는 자리였다. 학급 다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생 경기 종목에 대해 의견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경기 종목과 구체적인 경기 방법, 그 의견을 바라는 이유 등을 적고 한 명씩 발표했다. 학생들은 의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논의했다. <표 III-1>은 9월 20일 다모임에서 학생들이 밝힌 개인 의견과 최종 결정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1> 9월 20일 다모임에서의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

주제: 운동회 학생 경기 종목 정하기		
이름	개인 의견	다모임 결과
강미연	보물찾기	홀라후프 릴레이
백준경	우산잡기	
박혜지	퀴즈쇼	
김소희	홀라후프 릴레이	
이정혁	홀라후프 릴레이	
오동협	홀라후프 릴레이	

[개인 의견과 다모임 결과가 다른 의견을 진한 글씨로 표시함]

다모임 초반부에 개인 의견을 공유한 결과, 홀라후프 릴레이(3명), 퀴즈쇼(1명), 보물찾기(1명), 우산잡기(1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다모임 결과 6학년 학생 경기는 ‘홀라후프 릴레이’로 결정되었다. 결정 내용과 다른 개인 의견을 제시했던 학생은 강미연, 백준경, 박혜지 학생이다. 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발언을 듣다가 궁금한 점을 묻거나 “좋아” 같은 말은 했지만, 주로 침묵, 웃음, 무표정 등을 보였다. 이번 다모임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달리 ‘홀라후프 릴레이’로 결정되었을 때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침묵하며 동조 반응을 보였다. 이 세 학생은 최종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²⁾

연구자: 미연아, 우리 아까 학급 다모임으로 의견 정했잖아요. 거기에 미연이의 의견은 잘 들어가 있어요?

강미연: 네.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강미연: 음...뭔가...제가 고른 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조금... 별로 없었어요. 홀라후프 릴레이는 ‘홀라후프 몇 개를 넘는다’ 같은 규칙도 있고, 끝도 완벽하니까요.³⁾

[2019. 09. 20. 학생 면담]

2) 이 번호는 인용문의 번호로 ‘3장 1절’의 ‘첫 번째’ 인용문을 뜻한다. 이하 인용문 번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3) 진한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연구자가 동조 분석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의 표기이다. 이하 인용문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②

연구자: 준경아, 우리 아까 학급 다모임으로 의견 정했잖아. 거기에 준경이의 의견은 잘 반영되어 있어요?

백준경: 어...네.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백준경: 어, 우산잡기는 규칙도 제대로 없는데 우리가 정한 의견은 쉽고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2019. 09. 20. 학생 면담]

미연이(1-①)와 준경이(1-②)는 최종 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답했다. 다모임 장면에서는 두 학생이 최종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두 학생은 면담에서 자신의 원래 의견이 가진 단점들을 언급하면서 최종 의견의 장점들을 설명했다. 두 학생은 다모임에서 최종 의견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자신의 의견과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비교하며 분석하고 있었다. 두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의견이 최종 의견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 동조했다. 이 경우의 동조는 정보 영향으로 인한 동조라고 볼 수 있다. 정보 영향으로 인한 동조의 특성은 2절 가항에서 다른 사례와 연결 지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 혜지: 적합한 결정 혹은 정당한 결정을 기준으로 동조

다모임에서 혜지도 자기 의견과 달랐지만 최종 결정에 침묵하며 동조했다. 하지만 미연, 준경과는 달리 혜지는 자신의 동조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③

연구자: 이번 학급 다모임에서 홀라후프 릴레이로 의견을 정했어요. 혜지 의견이 잘 반영되었어요?

박혜지: 모르겠어요.

연구자: 모르겠어요? 혜지가 느끼기에 잘 반영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인가요?

박혜지: 네.

연구자: 혜지 원래 의견은 퀴즈쇼였고, 친구들은 홀라후프 릴레이로 정했잖아. 혜지는 그 의견에 별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박혜지: 네.

연구자: 어떤 점이 괜찮았어요?

박혜지: 그냥 마음이 갔어요.

연구자: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갔어요? 그럼 우리가 정한 결과에 만족해요?

박혜지: 네.

[2019. 09. 20. 학생 면담]

최종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혜지(1-3)는 ‘그냥 마음이 갔다’고 답했다. ‘마음이 갔다’는 표현은 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혜지가 동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혜지가 ‘그냥’이라고 답한 것은 동조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보여준다. 동조는 개인 내면의 보이지 않는 선택과 판단의 결과로 발생한다.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라 할지라도 생각의 흐름을 읽는 것이나 마음이 가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생활 속에서 흔히 ‘나도 모르게’, ‘그냥’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로 쓰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동조와 침묵은 그 의미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은 때때로 동조와 침묵에 ‘그냥’이라는 이유를 붙이기도 한다.

혜지와 같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동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최종 의견을 ‘적합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기 의견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여 동조하게 된다. 둘째, 최종 의견을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의견이 아니더라도 최종 결정된 의견이 정당한 절차의 결과라고 판단하며 동조하게 된다. 다모임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혜지는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된 최종 의견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는 이유에서 동조했을 수 있다.

2. 9월 23일 다모임에 나타난 동조

가. 준경: 무사유(無思惟)를 벗어난 동조

2019년 9월 20일 학급 다모임 이후, 각 학년 월 대표들이 모여 ‘작은 다모임’을 실시했다. 1~6학년의 학급 다모임 내용을 공유한 결과, 학년별로 원하는 종목이 달랐다. 작은 다모임에서 의견을 정하지 못하여 결국 다시 학급 다모임을 열기로 했다. 9월 23일 학급 다모임에서는 다른 학년들이 결정한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6학년 의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의견을 정했다. 6학년의 학생들은 작은 다모임에 참여했던 동협이의 설명을 듣고, 6학년 의견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논의했다. 학급 다모임 결과 6학년 의견은 ‘가위바위보 실시 후 이긴 사람 뒤에 진 사람이 붙어서 서는 과정을 반복하여 전체 한 줄을 만든 다음, 홀라후프 릴레이 하기’로 정해졌다. 이 의견은 다모임에서 정혁이가 새롭게 제시한 의견이었다. 다모임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때, 준경이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경이와 면담을 실시하여 최종 결정된 의견에 대한 생각을 확인했다.

2-□

연구자: 준경아, 이번 다모임에 준경이 의견 잘 반영되었어요?

백준경: 음...이번엔 아닌 것 같아요.

연구자: 이번엔 아닌 것 같아? 왜?

백준경: (웃으며) 제가 의견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중략]

연구자: 그럼 마지막 나온 의견은 어때? 두 개 합친다는 새로운 의견이 나왔잖아요.

백준경: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부족한 점을 완성시켜 주니까.

연구자: 각 의견이 가진 단점을 잘 보완하니까 좋다고 생각했구나. 준경이 아까는 이렇게 ‘잘 완성시켜주니까 좋다고 생각해’라고 말 안했잖아.

백준경: (웃으며) 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019. 09. 23. 학생 면담]

준경이는 최종 의견이 여러 단점을 보완하는 의견이라고 보았다. 준경이는 다모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했다. 의견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다모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통해, 준경이는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언어적 행위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모임에서 관찰된 준경이의 침묵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준경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2-㉔

연구자: 준경이는 왜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요?

백준경: 어...어떻게 할 지 생각 중이었어요.

연구자: 시간이 조금 부족했나요?

백준경: 아니요. (4초 침묵)

[중략]

연구자: 그럼 준경이는 친구들이 말하는 동안 계속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어떤 의견이 좋을지?

백준경: 네.

[2019. 09. 23. 학생 면담]

다모임에서 준경이가 침묵한 이유는 어떤 결정을 할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경이는 침묵하며 다른 학생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여러 의견들의 장단점을 따지며 준경이는 어느 의견을 따라야 할지 고민했다. 준경이는 ‘비참여’와 ‘무응답’의 형태를 보이며 다모임에 참여했다. 하지만 준경이가 보인 침묵의 경우, 비참여나 무응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비참여나 무응답의 형태를 보일 때는 주로 의사결정 과정에 집중하지 못하여 구성원들이 제시한 의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준경이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발언 횟수는 적었지만, 침묵하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다지고 있었다.

2-㉕

오동협: 홀라후프 릴레이가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정혁: 가위바위보 끝판왕도 시간이 되게...많이 남을 것 같은데?

[중략]

김소희: 보물찾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도 잘 안되고, 가위바위보 끝판왕도 아직 결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정혁: 이거하고 이거 합치면?

김소희: 뭐하고?

이정혁: 가위바위보 하고 홀라후프 릴레이.

오동협: 가위바위보 끝판왕하고 홀라후프 릴레이를 합치자고?

김소희: 어떻게?

백준경: 가위바위보 끝판왕으로 먼저 한 줄을 만든 다음에 홀라후프 릴레이를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아.

이정혁: 맞아.

[2019. 09. 23. 학급 다모임 녹취]

2-③은 다모임 후반부에서 의견을 결정하기 직전 장면이다. 준경이는 다모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했다. 정혁이가 새롭게 제시한 의견을 몇몇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준경이가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준경이는 자신이 동조한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번 다모임에서 나타난 준경이의 동조는 여러 정보들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된 미연이(1-①), 준경이(1-②)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보 영향으로 인한 동조로 볼 수 있다. 정보 영향으로 인한 동조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의 의견이나 증거를 참고하며 나타난다. 타인의 의견과 증거를 새로운 정보로 활용하여 나타난 동조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개인이 동조하더라도 정보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연습의 기회가 된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증거들은 새로운 배움의 소재가 된다. 이처럼 스스로 정보를 얻고 판단을 내린 결과로 일어난 동조는 다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지속성’을 지닌다. 정보 영향을 받아 동조했던 준경이는 다음에 비슷한 의사결정 상황에 놓일 경우 이번에 얻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동조는 ‘생각하기도 전에 동조’하기보다는 ‘생각한 후 동조’하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동조하려면, 개인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어진 주제와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면, 본래 자신의 의견이 가지는 한계점이나 다른 대안들이 가진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출발점부터 각자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토의와 토론 같은 의사결정 과정은 집단으로 이뤄지며 여러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의 역할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생각하지 않아도 또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누군가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며 여기에 따르면 된다고 여긴다. 또한 학생들의 최종 의견은 익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모둠 활동을 마무리한 뒤에 각 학생들에게 활동 결과를 물을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 의

견을 말한다. 교사가 모둠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묻거나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할 경우, 많은 학생들이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라고 답변한다. 모둠 활동에서 결정된 의견이 어떠한 근거와 맥락에서 나왔는지 학생 스스로 사유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모둠 의견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이 생긴다.

D초등학교의 6학년 학급에서는 다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 각자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 근거 등을 메모한다. 이 준비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여러 의견들을 비교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6학년 학생들 중 미연, 혜지, 준경 등 세 학생들은 학습 상황에서 대부분 침묵한다(<표 I-1>참고).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문답 상황을 제외하면, 세 학생은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에 주저한다. 다모임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통해 세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미리 준비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판단하며 최종 의견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나. 미연: 타인에게 마음 쓰기로써 동조

같은 사람의 침묵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9월 20일 다모임에서 미연이가 보인 침묵(1-㉠)은 ‘동의’의 의미였다. 이번 다모임에서 나타난 미연이의 침묵은 ‘배려’와 ‘주저함’의 의미를 지닌다. 미연이의 침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2-㉠

연구자: 정혁이가 낸 ‘가위바위보 끝판왕이랑 홀라후프 릴레이 합치는 의견’으로 6학년 의견을 정했잖아. 미연이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강미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긴 했는데, 안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었어요.

연구자: 아, 전에도 속으로 생각했었어?

강미연: 네.

연구자: 정혁이가 이야기 했을 때 반가웠겠네?

강미연: 네.

연구자: 근데 미연이 ‘완전 좋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했잖아.

(강미연 웃음)

연구자: 속으로 엄청 동의했으면서 왜 그렇게 표현은 안했어?

강미연: 그냥..좀...그랬어요.

[2019. 09. 23. 학생 면담]

의견에 적극 동의할 때에도 좋다는 표현을 주저할 만큼, 미연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미연이는 평소 학급 내에서 발언 빈도는 높지 않으나 타인을 배려하며 말하고 행동한다. 또한 4·3 사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 눈물을 흘릴 만큼,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번 다모임에서 미연이가 보인 동조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음이론은 타인의 사고와 느낌의 유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마음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상대방과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인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마음이론이 발달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 지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마음이론이 발달해 있는 학생은 ‘자신이 발언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자신의 발언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등을 먼저 인지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마음이론은 의사소통 유형에도 영향을 준다. 자신의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고 비판 없이 들어줄 수 있다고 인식되는 상대와는 대화를 많이 나누지만 그렇지 않다고 인식되는 상대와는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Bosacki, 2005; 이성민, 2008, pp. 11-12에서 재인용).

미연이는 처음부터 최종 의견과 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자기 의견이 최종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 마음이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미연이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먼저 생각한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침묵하게 된다.

미연이가 다른 학생들에게 마음을 썼던 것에 비해, 다른 학생들은 미연이에게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미연이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으로 자신의 의견을 숨기게 되었다. 미연이 스스로도 타인에게 들이는 관심을 자신에게로 옮겨 자신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만큼 자신에게 관심을 두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 의사결정에서 구성원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집단 의사결정에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조율한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반응을 신경 쓰면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침묵을 윤리적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중략]...대화나 윤리적 차원에서는 참여자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모든 참여자가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중요하다...[중략]... 만약 그들 중 어떤 참여자의 생각이 사라지거나, 축소되거나 무시당한다면, 그들의 인간성은 질문을 받게 되고 왜곡되고 비윤리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만약 어떤 이가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이와 소통한다면, 이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고 집중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의사소통할 때 서로에게 집중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Petress, 2001, p. 106).

침묵의 윤리적 차원에 주목한다는 것은 침묵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축소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침묵으로 인해 의견이 왜곡되고 축소되는 동안 다른 구성원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며 개인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윤리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관용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주장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Petress, 2001, p. 107).

다. 소회: 전략적 동조

이번 다모임에서 준경이와 미연이가 침묵하고 동조하는 동안, 소회는 계속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면담에서 소회는 최종 의견에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2-㉔

연구자: 소희야 이번 다모임에 소희 의견 잘 반영되었어요?

김소희: 잘은 아닌 것 같아요.

연구자: 잘은 아니야? 왜?

김소희: 어...홀라후프 릴레이를 해봤는데, 별로 안 좋다고 느꼈는데. 마지막에 말하기가 조금 그랬어요.

연구자: 속으로 이걸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 어떤 부분이 별로였어?

김소희: 약간 기다리는 시간이 뛰는 시간보다 더 많고, 이거 하는 사람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2019. 09. 23. 학생 면담]

이번 다모임에서는 다른 학년의 학생들에게 6학년 의견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정혁이가 홀라후프 릴레이 경기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모임 중간에 시범 영상을 촬영했다. 소희는 시범 영상을 촬영하며 경기를 직접 경험한 결과, ‘허리가 아프고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소희는 자신이 진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견 즉,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를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의견을 주장하는 대신, 소희는 침묵하며 동조하였다. 소희는 최종 의견에 동조하였으나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침묵으로 숨기며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희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소희는 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에 동조했을까?

2-㉕

김소희: 이미 다 정해진 분위긴데, 말하기 조금 눈치 보였어요.

연구자: 눈치 보였어? 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김소희: 아니요.

연구자: 아니면...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정하는 것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거 말하면 뒤집어야 되고 그래서?

김소희: 네.

연구자: 그럼 지금은 어때? 이걸로 결정되었는데?

김소희: 그냥 다른 학년이...잘 반대해줬으면 좋겠어요(웃음).

[2019. 09. 23. 학생 면담]

소희는 이미 다 정해진 분위기인데 눈치가 보여서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은 것이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답했다. ‘다른 학생이 자신보다 많이 알고 있다’거나 ‘친구들이 동조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때문이 아니었다. 소희의 동조는 II장에서 살펴본 동조의 원인인 정보 영향, 규범 영향, 대인 영향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소희는 앞으로 있을 의사결정에서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조하였는데, 연구자는 이를 ‘전략적 동조’라는 이름으로 칭하고자 한다.

‘전략적 동조’는 집단의 주 의견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의견을 지지하지만, 전략을 가지고 주 의견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면담 후반부에서 소희는 다른 학년 학생들이 6학년의 의견에 반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희는 동조했지만, 여전히 최종 의견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집단 내 주류 의견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최종 의견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 뒤에 주 의견에 따랐다는 점에서 소희의 동조는 전략적 동조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동조에 대해서는 3절 나항에서 다른 사례와 연결 지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라. 동협: 침묵에 대한 오해

침묵은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방해 요소라고 여겨지며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번 다모임의 일부 장면을 통해 학생들이 집단 의사결정에서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7

<17초 침묵>

오동협: 빨리 정해야 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6학년 의견에?

<1분 55초 침묵>

오동협: 아... 의견 좀 내.

이정혁: 아...

김소희: 생각이 안나. 딱히...

(이정혁, 김소희 웃음)

오동협: 딱히 의견이 없다고?

김소희: 아니, 이게 지금 이 방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딱히 보완할 게...

[2019. 09. 23. 학급 다모임 녹취]

2-7은 총 18분 17초 동안 진행된 학급 다모임의 한 장면이다. 6학년 학생 6명 전원이 한참을 침묵하였고, 학생들의 발언 없이 상당 시간이 흘렀다. 거의 2분여의 시간 동안 침묵이 이어지자, 동협이는 의견을 내라고 말하며 다른 친구들의 발언을 독려했다. 이 후에도 동협이는 혼자 의견을 정리하고 옆 학생에게 질문하며 최종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정혁이와 소희는 계속 종이를 들여다 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희는 동협이가 재촉하는 발언을 듣고 그 전에 나왔던 의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추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학급 다모임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학생은 동협, 정혁, 소희 등 총 3명이다.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은 계속해서 침묵했다. 침묵이 이어질 때 의견을 내라고 독려했다는 것으로 보아, 동협이는 ‘침묵한다는 것은 의견이 없는 것이며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집단 내 다수 학생들이 침묵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당혹감과 답답함을 주며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동조 반응으로 나타나는 침묵은 ‘찬성’, ‘반대’, ‘동의’, ‘비동의’, ‘무사유’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비언어적 행위인 침묵은 행위자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행위자가 의견에 동의하며 침묵하더라도 보는 사람은 비동의를 의미하는 침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의견에 동의한 결과로 동조하며 침묵할 때에도, 동조자가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나 의견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식의 오해가 생긴다. 침묵의 모호성으로 인해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조에 대해서도 오해가 생기게 된다.

마. 정혁: 침묵에 담긴 동조 의미에 대한 오해

9월 23일 다모임에서 최종 의견은 정혁이가 제시한 ‘홀라후프 릴레이와 가위바위보 끝판왕 합치기’로 정해졌다. 최종 의견이 정해질 때 나머지 학생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동조했다. 특히, 다모임 후반부에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던 정혁이가 다른 학생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확인했다.

2-㉔

연구자: 오늘 정혁이가 마지막에 의견 낸 걸로 결정이 되었지? 다른 친구들도 그 의견에 동의할까?

이정혁: 음...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자: 아직 다 동의한 것 같지는 않아?

이정혁: 어...대답을 안 해요.

연구자: 친구들이?

이정혁: 네.

연구자: 친구들은 왜 대답을 안 할까?

이정혁: (6초 침묵)그냥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서 아닐까요?

연구자: 그냥 원래 의견처럼 홀라후프 릴레이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정혁: 네.

[2019. 09. 23. 학생 면담]

정혁이는 ‘자신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는 물음에 대해 ‘말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른 학생들이 왜 말하지 않은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정혁이는 ‘자신이 제시한 새로운 의견보다는 원래 의견이 더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정혁이는 다른 학생들이 최종 의견보다 원래 의견이 더 좋았기 때문에 침묵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살펴본 준경, 미연, 소희 등 세 학생의 면담 내용과 정혁이의 해석을 비교해 보자.

정혁이의 의견에 동조했던 소희의 경우, 정혁이의 해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정혁이가 다른 학생들의 침묵을 ‘그냥 그대로가 좋아서’ 즉, 자신이 새롭게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석했다는 점에서는 소희의 침묵 이유와 일치한다. 소희는 정혁이가 제시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발언하지 않고 침묵하며 동조했다.

하지만 준경이와 미연이의 경우, 정혁이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동의하며 동조했다. 두 학생은 정혁이가 제시한 의견이 기존 의견의 단점을 잘 보완해준다고 설명했다. 준경이와 미연이가 정혁이의 의견에 동조한 이유는 그 의견이 새로운 정보로서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준경이와 미연이도 자신의 동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 정혁이는 두 학생의 침묵과 소희의 침묵이 서로 다르다고 보지 않았다. 세 학생의 침묵 모두 ‘다른 의견을 더 지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언어적 행위인 침묵은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애매함이 발생하여 오해와 불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한상원, 1994; 김인택,

2015, pp. 453-455에서 재인용). 침묵은 동조 반응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혁이와 같이 구성원들의 동조를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3. 9월 24일 다모임에 나타난 동조

가. 동협: 흑백논리를 벗어난 동조 유도

9월 23일 다모임이 끝난 후, 월 대표들이 모여 작은 다모임을 실시했다. 학급 다모임 결과들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눈 결과, 학년별 의견이 다양하여 경기 종목을 하나로 정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1~6학년이 차례로 학년별 경기를 실시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성공하는 것을 학생 경기로 정했다. 9월 24일 다모임 주제는 운동회 학생 경기에서 실시할 6학년 종목을 정하는 것이었다. <표 III-2>는 9월 24일 다모임에서 학생들의 개인 의견 변화와 다모임의 최종 결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2> 9월 24일 다모임에서의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

주제: 운동회 학생 경기(6학년 경기 종목 정하기)				
이름	개인 의견			다모임 결과
	1차	2차	3차	
강미연	긴줄넘기, 마피아	긴줄넘기	6인 7각	6인 7각
백준경	신발던지기	긴줄넘기	6인 7각	
박혜지	긴줄넘기	우산잡기	6인 7각	
김소희	탁구공 옮기기, 고요 속의 외침	긴줄넘기	6인 7각	
이정혁	우산잡기	우산잡기	우산잡기	
오동협	비석치기, 신발던지기, 콩주머니 골인시키기, 긴줄넘기, 2인 3각	2인 3각	6인 7각	

[개인 의견 중 다모임 결과와 같은 의견이 없는 경우를 진한 글씨로 표시함]

학생들은 총 3차에 걸쳐 6학년 경기 종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모임에서 최

종 결정된 6학년의 경기는 '6인 7각'이다. 1차에 의견을 공유할 때까지만 해도 6인 7각은 제시되지 않았다. 1차 의견 공유에서 오동협 학생이 '2인 3각'을 제시했고, 논의를 거듭하며 '6인 7각'으로 변형되었다. 운동회 학생 경기의 기본 원칙은 학생들 간의 배려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1차 의견으로 제시된 2인 3각에 대해 '6학년 여섯 명 전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두 명끼리만 협력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인 3각을 지지하던 동협이는 다른 학생들이 언급한 단점을 보완하여 '6인 7각'이라는 경기를 제안했다. 학생들은 동협이의 제안을 듣고, '여섯 명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라는 점', '개인의 운동 기량이 아닌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등을 이유로 들어 6인 7각 경기의 장점을 인정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경계해야 할 태도 중 하나는 흑백논리이다. 사람들은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찬성 혹은 반대 양쪽으로 나누는 입장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어떤 주제는 양 극단에 놓인 의견 사이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양자택일 하라는 압력에 가려서, 양자 이외의 의견들은 철저히 무시된다(いけだ きよひこ, 이정은 역, 2018, p. 142). 흑백논리는 집단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논의하며 최종 의견을 정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집단 내에서 소수의 구성원이 자신과 같은 의견을 지지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흑백논리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려는 분위기라면, 개인은 다른 대안을 고려할 여유도 없이 집단의 주 의견 쪽으로 동조할 확률이 높다. 스스로 새로운 의견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과정 없이, 단지 '흑 아니면 백',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 식으로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다모임에서는 학생들이 흑백논리를 벗어나 여러 대안을 모색한 후 동조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서 제시했던 <표 III-2>를 참고하며 당시 학급 다모임의 과정을 살펴보자. 학급 다모임에서 2차 의견을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2인 3각은 6명 중 1명만 원하는 소수 의견에 해당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인 3각에 대해 운동회 학생 경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2인 3각을 원했던 동협이는 6인 7각이라는 새로운 종목을 제안했다. 나머지 학생들도 수정된 의견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고, 마음을 바꾸어 해당 의견

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만약 흑백논리 틀에 갇혀 있었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동협이에게 ‘2인 3각이라는 의견은 문제점이 많으니, 다수가 원하는 긴줄넘기로 하자’라는 식으로 권유했을 것이다. 또한 동협이도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논리에 따라 ‘2인 3각이 문제가 많으니 긴줄넘기를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모임 장면에서 학생들은 흑백논리를 벗어나 양 극단 사이에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소수의 의견이라며 무시될 수 있었던 아이디어가 수정·보완되어, 다수가 지지하는 아이디어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작은 가능성을 포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나타난 동조 반응은 여러 대안의 결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집단 의사결정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정혁: 전략적 동조

동협이가 6인 7각 의견을 제시한 후, 이 의견에 동조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났다. 다모임 후반부에는 6인 7각을 지지하는 학생 5명과 우산잡기를 지지하는 학생 1명(정혁)으로 나뉘었다. 5명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정혁이를 설득한 결과, 6인 7각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정혁이는 어떤 이유로 동조하게 되었을까?

3-□

연구자: 정혁이는 원래 우산잡기가 하고 싶었잖아. 근데 5명이 6인 7각 원하고 정혁이만 우산잡기를 원했지? 마지막에는 6인 7각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야?

이정혁: 어...어차피 우산잡기는 다른 학년에서 나올 확률이 있어서요.

연구자: 우리 학년 말고 다른 학년에서?

이정혁: 네.

[2019. 09. 24. 학생 면담]

정혁이는 ‘다른 학년에서 자신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의견에 동조했다. 다른 학년에서 같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현재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이루어질 의사결정에서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의견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략으로 마련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소희의 동조(2-6)와 같이 정혁이의 사례도 전략적 동조로 볼 수 있다.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집단의 최종 의견을 정해야 한다. 학급 다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6학년의 의견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가진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대립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은 결국 집단의 최종 의견을 정해야 한다. 소희와 정혁이는 집단의 최종 의견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두 학생이 동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학생들과 대립 상태를 유지하며 설득하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 다모임의 목표였던 '6학년 의견 정하기'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둘째, 학급 다모임에서 나머지 구성원들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상황은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나 집단 내 개인의 입지에 악영향을 준다. 이처럼 동조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여전히 주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 때 자신의 의견이 채택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 뒤 동조하기도 한다.

다. 전체 학생: 대립 과정에서 찾은 대안에 동조

이번 다모임에서는 6인 7각을 1순위 종목으로 정한 다음, 2순위 의견도 정해야 했다. 다른 학년에서 정한 1순위와 6학년의 1순위가 겹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2순위 종목 선정이 필요했다. <표 III-3>은 9월 24일 다모임에서 2순위 경기를 정할 때, 학생들이 밝힌 개인 의견 변화와 최종 결정된 의견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III-3> 6학년 경기 2순위 정하기에서의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

주제: 운동회 학생 경기(6학년 경기 2순위 정하기)			
이름	개인 의견		다모임 결과
	1차	2차(1인당 2개씩 고르기)	
강미연	긴줄넘기	긴줄넘기, 탁구공유키기	긴줄넘기
박혜지	긴줄넘기	긴줄넘기, 탁구공유키기	
백준경	우산잡기	우산잡기, 긴줄넘기	
이정혁	우산잡기	우산잡기, 긴줄넘기	
김소희	신발날리기와 콩주머니 합친 경기	신발날리기와 콩주머니 합친 경기, 긴줄넘기	
	신발날리기와	신발날리기와	
오동협	신발날리기와 콩주머니 합친 경기	신발날리기와 콩주머니 합친 경기, 긴줄넘기	
	신발날리기와	신발날리기와	

[1차 개인 의견과 다모임 결과가 다른 경우를 진한 글씨로 표시함]

1차 의견을 공유한 결과, 긴줄넘기(2명), 우산잡기(2명), 신발날리기와 콩주머니 경기를 합친 경기(2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1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5명이 지지하는 의견과 정혁이 1명이 지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2순위 종목을 정할 때에는 집단 내의 주류 의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학생들은 2순위를 정하는 문제를 절실한 선택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주제의 성격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㉔

오동협: 진짜 우산잡기 하고 싶어?

이정혁: 응!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백준경: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오동협: 우산잡기 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배려와 협력이 들어가 있고 재밌을 것 같기 때문이지?

이정혁: 응. 난 콩주머니 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오동협: 나는 일단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생각하고...그 다음엔 우리가 생각한 놀이 중에서 가장 흥미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려와 협력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2019. 09. 24. 학급 다모임 녹취]

1순위에서 동조 반응을 보였던 정혁이는 2순위를 정할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준경이가 정혁이와 같은 의견을 지지했으며, 보충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정혁이의 주장을 보완해 주었다. 두 학생은 ‘재미’와 ‘의

미'를 이유로 들어 주장을 펼쳤다. 9월 20일 다모임에서 정혁이는 우산잡기를 학생 경기 종목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이미 전교생이 같이 해보았고 재미도 없으며 힘들기만 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었다. 나머지 학생들도 이 의견에 동의했었기 때문에, 이번 다모임에서 우산잡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두 학생(준경, 정혁)에게 계속해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인지', '우산잡기가 왜 하고 싶은 것인지'를 물었다. 주로 동협이와 소희가 우산잡기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신들의 의견으로 설득하려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3-③

이정혁: 너는 왜 그걸 원하는데?

김소희: 나는 새로운 놀이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정혁: 나는 그거 해봤는데.

김소희: 그나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안 해봤었잖아.

오동협: 너 진짜 우산잡기 하고 싶어?

이정혁 응!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김소희: 그럼 우산잡기를 3순위로 하자.

이정혁: 왜? 너 마음대로 바꿔.

[중략]

이정혁: 그럼 2순위를 2개씩 말해보는 건 어때?

[2019. 09. 24. 학급 다모임 녹취]

동협이와 소희가 주장한 의견은 신발날리기와 콩주머니 경기를 합친 방식이다. 두 학생은 두 가지 경기 방법을 합쳤다는 점에서 새로운 놀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경기 종목들은 학생들이 한 번씩 해보았는데, 그에 비해 이 경기는 해본 경험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자 정혁이는 자신은 해본 경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2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혁이와 준경이, 동협이와 소희가 계속해서 서로의 의견에 질문하고 답하며 대립하였다. 논의 중간에 소희가 우산잡기를 3순위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혁이는 소희에게 왜 마음대로 하나고 항의했다.

2순위를 정하는 다모임 장면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의 집단 의사결정이 갖는 특이성이 나타난다. 이제까지 다모임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에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길 경우 동조하기도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2순위를 정하는 과정

에서 보인 태도는 이전 모습과 차이가 있다. 자신이 이전에 흥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고, 다른 학생들이 단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답하지 않으며 “그러는 너는 왜 그 의견을 주장하지?”와 같이 반문하기도 했다. 1순위가 겹쳤을 때를 대비하여 마련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2순위를 정할 때 더 쉽게 동조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학생들은 아무도 자신의 입장을 바꾸려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상대의 발언에 트집을 잡거나 고집을 부려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웠다.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 놓이자, 다른 학생의 입장에 따르는 것을 승패의 문제로 여겨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의견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혁이는 ‘자신이 원하는 2순위 종목을 각자 2개씩 말해보자’고 제안했다. 동조하려는 학생이 없어 합의가 어려워지자, 차선책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2순위 종목을 2개씩 말했다(<표 III-3> 참고). 미연이와 혜지는 긴줄넘기와 탁구공웁기기를 주장했다. 두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에 동조하는 대신 자신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했으며, 두 번째 의견으로는 새로운 의견을 선택했다.

미연이와 혜지는 1차 의견에서 긴줄넘기를 원한다고 밝힌 후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끄덕임, 웃음 등 비언어적 행위를 보이면서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번 다모임에서 미연이와 혜지가 보인 침묵은 다른 다모임에서 보인 침묵과는 다르다. 이전 다모임에서 두 학생의 침묵은 동의 표현이나 동조 반응으로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번 다모임에서 두 학생은 침묵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살피면서도 다른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 2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대립하며 각자의 의견만 고집했던 상황이 두 학생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모임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던 준경-정혁과, 소희-동협이는 자신들의 원래 의견을 유지했으며 두 번째 의견으로 ‘긴줄넘기’를 선택했다. 다모임 장면에서 네 명의 학생은 서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네 학생은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는 대신, 긴줄넘기 의견으로 동조하는 것을 선택했다. 모든 학생의 선호 종목들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6학년 경기 2순위 종목은 소희와 미연이가 주장했었던 ‘긴줄넘기’로 정해졌다. 긴줄넘기는 이번 다모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의견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의견이 최종 의견으로 결정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3-④

연구자: 이번 다모임 결과에 정혁이의 의견이 잘 담긴 것 같아요?

이정혁: 음...긴줄넘기 정도는...담긴 것 같아요.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정혁: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줬어요.

3-⑤

연구자: 준경아, 이번 다모임 결과에 준경이 의견은 잘 들어갔어요?

백준경: 음...이번에는 반반이요.

연구자: 이번에는 왜 반반이예요?

백준경: 어...긴줄넘기를 하고 싶었고 긴줄넘기로 정해진 건 좋은데, 3순위를 아직 안정했잖아요. 그래서 반반이예요.

3-⑥

연구자: 이번 다모임의 결과에 동협이 의견이 잘 반영되었어요?

오동협: 네!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오동협: 일단...1,2순위 정할 때, 제가 원하는 거나 다른 애들이 원했던 거 잘 들어갔기 때문이예요.

[2019. 09. 24. 학생 면담]

정혁(3-④), 준경(3-⑤), 동협이(3-⑥)는 긴줄넘기가 자신이 원했던 의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최종 의견에 자신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동협이와 같은 의견을 주장했던 소희 역시 긴줄넘기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지만 다른 이유를 제시했다.

3-⑦

연구자: 다모임 결과에 소희의 의견은 잘 반영되었어요?

김소희: 네.

연구자: 어떤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김소희: 어...신발날리기랑 콩주머니 합친거요. 결국 안되었지만(웃으며).

연구자: 근데 최종 결정된 의견은 그게 아니었잖아.

김소희: 그래도 말한 것에 만족해요.

[2019. 09. 24. 학생 면담]

소회는 다모임 결과에 자신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차선택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지 않았다. 소회는 다모임에서 신발날리기와 콩주머니 경기를 합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해당 의견이 논의 대상으로 된 것 자체에 만족했다. 앞서 헤지(1-㉓)의 동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인은 적합한 결정이나 정당한 결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며 최종 의견을 수용한다. 이 다모임에서 소회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경험을 했다. 소회는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며 효능감을 느끼면서 최종 결정된 의견에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했다. 다모임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만족하기 때문에 소회는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있었다.

4. 9월 27일 다모임에 나타난 동조

가. 미연: 또래의 눈치를 살피며 나타난 동조

2019년 9월 27일 실시한 학급 다모임의 주제는 ‘2학기 월 대표 정하기’였다. D 초등학교에서는 ‘월 대표’가 학급 구성원의 대표 역할을 한다. 월 대표는 전체 다모임에서 학년 의견을 발표하며, 학년별 월 대표끼리 주최하는 회의(작은 다모임)에 참여한다. 6학년 월 대표는 월 1~2회 실시하는 전체 다모임의 진행을 맡아 의사결정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월 대표는 보통 월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 6학년에서는 지난 1학기에 5명, 9월에 1명이 월 대표를 맡았다. 6학년 학생 6명 모두 이미 한 번씩 월 대표를 경험했으며, 남은 2학기의 월 대표를 누가 맡을지 정해야 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남은 2학기 기간 동안 필요한 월 대표의 수는 총 4명이었다. 다모임 시작 단계에서 학생들은 ‘2학기 월 대표를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까’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했다. 다음 <표 III-4>는 9월 27일 다모임에서 나온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I-4> 9월 27일 다모임에서의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

주제: 2학기 월 대표 정하기		
이름	개인 의견(이유)	다모임 결과
강미연	제비뽑기	① 원하는 사람이 월 대표를 한다. ↓ 소희, 미연, 혜지 손들 ↓
백준경	사다리 타기	
박혜지	다모임 진행을 한 번도 못했던 사람 (다모임 진행은 한 번쯤 해봐야 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② 전체 다모임 진행을 안 해 본 사람이 한다. (준경 설득)
김소희	원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사다리 타기나 투표로 하면 대표를 다시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정혁	1학기 때 다모임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사람, 원하는 사람, 제비뽑기 순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오동협	제비뽑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를 진한 글씨로 표시함]

다모임을 진행한 결과, 월 대표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전체 다모임을 진행하지 않았던 학생을 다음 월 대표로 선정하기로 했다. 월 대표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희, 미연, 혜지 등 3명이었다. 하지만 미연이는 다모임 초반에 ‘제비뽑기로 정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제비뽑기는 추천하는 방식이라 미연이가 뽑히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었다. 미연이는 왜 제비뽑기를 제안했을까?

4-□

연구자: 미연이는 원래 월 대표가 하고 싶었어?

강미연: 네.

연구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원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하고 ‘제비뽑기로 하자’고 했어?

강미연: 원하는 사람이 하자고 하면, 안될 것 같았어요.

연구자: 다른 친구들이 그 의견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어?

<2초 침묵>

강미연: 네.

연구자: 미연이는 원했잖아.

강미연: 원하긴 했는데요. 다른 친구를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2019. 09. 27. 학생 면담]

미연이는 자신이 월 대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침묵했다. ‘다른 친구가 그 의견을 원하지 않아 채택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소희는 미연이와 다르게 반응했다.

4-②

연구자: 소희는 원래 대표 하고 싶었어?

김소희: 네.

연구자: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하자고 했구나?

김소희: 네. 사다리나 투표하면 제가 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2019. 09. 27. 학생 면담]

소희도 미연이와 마찬가지로 2학기에 월 대표를 하고 싶어 했다. 개인 의견을 말할 때에도 소희는 ‘원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발표했다(<표 III-4> 참고). 소희는 사다리나 투표처럼 운에 의해 결정하면 자신이 월 대표를 하고 싶지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미연이가 소희와 달리, 자신의 본심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는 주변의 반응을 지나치게 염려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주변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며 행동할 경우, 자신 내부의 마음 상태나 희망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나. 준경: 동조를 원하는 분위기로 인한 동조

미연이가 자발적으로 또래의 눈치를 살피며 동조했던 것과는 달리, 준경이는 다른 학생들의 말에서 직접적인 압력을 느끼며 동조했다. 9월 27일 다모임에서는 원하는 사람으로 월 대표를 정한 다음, 남은 기간의 월 대표는 한 번도 전체 다모임 진행을 해보지 않은 학생이 맡기로 했다. 전체 다모임을 진행해 보지 않은 학생은 준경이었다. 하지만 준경이는 월 대표를 원하지 않았다. 다모임을 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이 준경이를 설득하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결국 준경이는 월 대표를 수락하였고 다모임이 마무리 되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의견에 동조한 준경이의 입장을 살펴보자.

4-③

연구자: 이번에 대표 뽑는 방법 정할 때는 준경이의 의견이 잘 반영 되었어요?

백준경: 대표요?

연구자: 네, 대표뽑는 방법 정할 때.

백준경: 사다리 타기였으니까...일단 아니라고 보면...되죠.

연구자: 그러면은 준경이가 원했던 방법 말고 원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되었을 때, 너에게 **눈치를 주거나 압력을 준 친구가 있었어?**

백준경: (웃으며)네. 동협이랑 정혁이요.

연구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꼈어?

백준경: (웃으며)계속 저를 보면서 안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연구자: 아, 아예 너를 딱 지목했어?

백준경: 네.

[2019. 09. 27. 학생 면담]

연구자가 ‘눈치를 주거나 압력을 준 친구’에 대해 물은 이유는 다모임에서 학생들이 “야, 눈치 주지마”, “너무 강요하지 마”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학급 다모임에서는 학생들도 느낄 만큼 준경이에게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준경이는 다른 학생이 자신을 바라보며 했던 “이제까지 한 번도 다모임 진행을 안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압력을 느꼈다.

준경이 외에도 미연, 소희, 혜지 등 총 4명의 학생이 월 대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의 압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강요를 하거나 압력을 준 사람으로 동협이와 정혁이가 지목되었다. 하지만 동협이와 정혁이는 누구도 준경이에게 강요를 하거나 압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두 학생은 준경이가 월 대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경이를 설득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압력이 누군가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준경이의 동조 사례는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이 동조를 원하는 분위기가 개인의 동조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은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기를 원할 때,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구성원에게 압력을 주기도 한다. 타인에게 동조 반응을 유도하는 말을 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비언어적 행위를 보인다. 개인의 동조 반응은 타인의 영향을 받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이 개인의 의견 변화를 기대하며 영향을 준 결과일 수도 있다.

이 다모임에서 준경이는 자신의 동조를 기대하는 분위기에서 압력을 느껴 동조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구성원 중 일부가 동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학생들은 동조한 학생의 의견도 의사결정 과정에 잘 반영된 것이라고 여길까?

4-④

연구자: 모두가 이 결과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김소희: 조금...

연구자: 조금 꺼림직한 것은 무엇 때문이야?

김소희: (4초 침묵)음...백준경이 별로 안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9. 09. 27. 학생 면담]

소희(4-④)는 준경이가 최종 결정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학생들 역시 준경이가 결과에 만족할지를 확신하지 못했다. 다모임 후반부에서 학생들은 서로 한 명씩 지목하며 ‘이 결과에 동의해?’라고 묻고 답했다. 준경이는 당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현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준경이가 겉으로 동조는 했으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4-⑤

연구자: 우리는 이번 다모임에서 월 대표를 어떻게 정하기로 했죠?

백준경: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아직 안 해본 사람이요(웃음).

연구자: 맞아. 준경이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었지?

백준경: 네.

연구자: 우리가 정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백준경: 어...괜찮은 것...같아요.

연구자: 어떤 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백준경: 어...제가 한 번도 안했는데...애들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준경이는 오늘 결과에도 만족해요?

백준경: 네.

[2019. 09. 27. 학생 면담]

학생들의 생각과 달리, 준경이는 다모임 결과에 만족했다. 자신이 원하던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이 월 대표를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해 볼 수 있겠다

고 생각했다. 준경이가 자신이 처음에 원했던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은 데에는 특정 학생들이 주는 압력 외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 이번 다모임에서 최종 의견을 정하는 과정을 준경이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준경이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학생은 다모임 진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월 대표를 하는 의견에 동의했다. 사실상 준경이 본인을 제외하면 만장일치 상황이었던 것이다.

집단의 만장일치는 동조에 영향을 미친다. Morris & Mirrer(1975)에 따르면 개인은 만장일치 된 집단의 결정을 직면할 때 커다란 동조 압력을 받게 된다(이냐은, 2008, pp. 9-10). 본인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자신도 입장을 바꾸어 완전한 만장일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압력을 느끼게 된다. 준경이는 다모임 과정에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학생들이 자신과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준경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4-⑥

연구자: 그때 마음이 어땠어?

백준경: (웃으며) 망했다.

연구자: 망했다?

백준경: 네.

연구자: 그러면 속으로 지금, ‘그때 끝까지 거부할 걸’ 이나 ‘아, 동협이랑 정혁이 때 문에’ 이런 마음이 조금 있어?

백준경: 음...네. 조금은 있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2019. 09. 27. 학생 면담]

준경이는 자신 외의 모든 구성원이 만장일치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망했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답했다. 침묵의 나선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살핀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집단 내 여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의견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피게 된다. 이 이론을 참고하면, ‘망했다’는 준경이의 표현은 스스로 모든 구성원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온 반응으로 보인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더라도 개인은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 준경이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며 만장일치 된 의견에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었으며, 자신에게 압력을 주는 동협이와 정혁이에게 반감을 표할 수도 있

었다. 하지만 자신 외의 모든 구성원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준경이는 동조를 선택했다.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준경이는 또래 압력을 느끼며 동조하였고, 이미 자신이 다른 대안으로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준경이의 사례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다른 구성원들이 개인이 동조하기를 바라며 말과 행동으로 압력을 준 결과로 동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개인이 다수의 구성원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수 의견 쪽으로 동조한다. 셋째, 학생들은 개인이 다른 의견에 만족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동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 전체 학생: 소수 의견을 지지한 동조

2019년 9월 27일 다모임의 두 번째 주제는 ‘운동회 경기(도망가는 바구니) 학생 대표 정하기’였다. ‘도망가는 바구니’의 학생 대표는 바구니를 메고 상대 진영을 뛰어 다니며 상대가 던지는 공이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도록 피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기는 바구니에 들어간 공의 개수로 경기의 승패를 정한다. <표 III-5>는 9월 27일의 두 번째 다모임에서 학생들이 밝힌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이다.

<표 III-5> 9월 27일 두 번째 다모임에서의 개인 의견과 최종 결과

주제: 운동회 경기 학생 대표 정하기			
이름	대표로 적합한 사람	대표 선정 방법	다모임 결과
강미연	달리기가 빠른 사람	50m 기록	사다리 타기
백준경	달리기가 빠른 사람	50m 기록	
박혜지	달리기가 빠른 사람	50m 기록	
김소희	달리기가 빠른 사람	50m 기록	
오동협	체력 좋고 빠른 사람	50m 기록, 왕복달리기 기록	
이정혁	잘 달리고 체력이 좋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제비뽑기	

[다수의 의견과 다모임의 결과가 다른 경우를 진한 글씨로 표시함]

학급 다모임의 초반부에서 정혁이를 제외한 5명의 학생들은 ‘달리기가 빠른 사

람이 학생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명 중 5명이라는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이었지만 최종 의견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음은 다모임에서 관찰된 일부 장면이다.

4-⑦

이정혁: 나는 잘 달리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빨리 도망가야 하긴 하지만, 또 그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지만...(3초 침묵)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제비뽑기로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무 하기 싫어서 억울할 수 있기 때문이야.

[중략]

오동협: 이제 그럼 하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자.

(전원 웃으며 손을 든다.)

오동협: 그러면 다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사람 의견도 존중해야 하니까,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로 하자.

김소희: 그래.

백준경: 그래.

[2019. 09. 27. 학급 다모임 녹취]

4-⑦은 5명의 학생들이 '달리기가 빠른 학생이 학생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한 직후의 상황이다. 학생 대표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정혁이는 '하기 싫은 사람이 되면 억울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 동협이의 제안으로 학생 대표를 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인지 손을 들어 확인했다. 모든 학생이 학생 대표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동협이는 '하기 싫은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혁이의 의견에 동조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안했다. 새로 제안한 의견은 운에 따라 무작위로 학생 대표를 정하는 방법이었다. 동협이는 '구성원 모두 하기 싫으니 한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운에 맡겨 결과에 따르자'는 의도를 설명했다. 다른 학생들이 동협이의 의견에 동조해서 이 의견은 새로운 주류 의견이 되었다. 이 의견에 동조한 소희는 이번 다모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4-⑧

연구자: 운동회 경기 학생 대표 정할 때 소희는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었잖아. 근데 우리는 사다리타기로 정했지? 그 결과에 소희 의

건은 잘 반영되었어?

김소희: 네.

연구자: 소희 원래 의견은 달리기 빠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잖아.

김소희: 근데 들어보니까요. 제일 빠른 사람은 이정혁인데요. 우리가 너무 이정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어요.

연구자: 정혁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

김소희: 네. 그냥...표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연구자: 그래서 사다리타기로 정하는 것에 동의했구나?

김소희: 네.

[2019. 09. 27. 학생 면담]

학생들 모두 ‘도망가는 바구니 학생 대표’를 원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달리기가 제일 빠른 학생을 대표로 뽑기를 원했다. 체육 시간에 50m 달리기를 실시했기 때문에 6학년 학생들 중 정혁이가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6명 중 5명은 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에게 압력을 주며 자신들의 의견에 동참하기를 강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다수의 강요로 의견을 정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모두가 하기 싫은 일을 특정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동협이의 발언에 동조하는 것을 통해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집단 구성원들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압박을 주는 분위기라면 소수 의견을 가진 구성원은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어렵다. 소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의견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과일 수는 있으나 좋은 결정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단순히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장일치의 분위기나 집단 내 압력 때문에 위촉될 수 있는 구성원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다수에 속한 구성원은 소수의 의견을 ‘틀리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

집단의 의사결정은 개인 의사결정의 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개인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의사결정에서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두고 ‘일부 개인의 의견이나 상황이 무시될 수도 있다고 해

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포용력을 가지고 동조를 살펴야 한다. 집단 의사결정에서 모든 구성원은 평등한 일원으로 여겨져야 하며, 동등한 조건에서 발언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 각각의 의견과 입장 변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집단의 의사결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IV. 동조 이해에 대한 논의

D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동조 특성은 집단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동조를 이해하는 데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 ‘동조의 해석’, ‘동조와 침묵의 관계’, ‘주제에 따른 동조의 경향’, ‘동조 결과에 대한 인식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동조의 해석

동조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기존 의견을 유지하지 않거나 다른 입장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소신이 없다’라고 해석한다. 자신의 원래 의견을 고수하며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개인이 의견과 주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동조 반응은 ‘포기’나 ‘현 상황에의 만족’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동조를 ‘인식 변화에 따른 선택’과 ‘주체적 판단의 결과’로 바라보면 동조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주변 분위기와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한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결국,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지지하며 동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참여민주주의에서 자율적 의지는 판단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재구성을 거친다(이정무, 2013, p. 40)고 볼 때, 동조도 자율적 의지의 구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의사를 결정하는 개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동조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의 장면에서는 ‘무사유’의 동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모임에 참여한 학생들은 의사 결정하기 전에 개인 의견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 학생들이 보인 동조는 고민과 해석, 선택과 판단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했다. 개인이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보들을 비교한 결과, 타인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여길 때 동조가 일어난다(2-①). 구성원이 제시하는 근거가 설득력이 있거나, 자신의 의견이 지닌 단점을 보완해 준다고 판단할 때도 동조한다(1-①, 1-②). 추후 자신의 의견이 선택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후에 지금

의 의사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2-5, 3-1). 또한, 다른 구성원들과의 입장차를 줄이고 상호 보완하며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의견 쪽으로 의견을 바꾸는 동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3-3, 4-8).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은 공동체 간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집단 의사결정에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서로 생각을 나누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입장만을 고집할 수 없다. 집단 의사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들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며, 다수의 개인들이 모여 공동의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공동체 내의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이 필요하며(이정무, 2013, p. 40), 이것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동조 반응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반응이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조는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여러 능력과 관련지어 볼 때,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 p. 3).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동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분석하며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 집단 의사결정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도 다른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을 기를 수 있다(교육부, 2015, p. 3). 여러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보, 새롭게 확보하는 정보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며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른다. 창의적 사고력은 여러 대안들의 범위를 확장시켜 새롭고 가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조된다. 동조는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정보들을 활용한 결과 자신의 의사를 바꾸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자질과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조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토의, 토론 등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조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동조 반응과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동조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동조 반응을 보일 때, 개인은 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침

묵한다. 동조가 표현되는 양식만을 보고 개인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동조를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간주한다. 하지만 동조는 의사소통과 협업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유지하며 타인을 설득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15, p. 3). 동조 반응은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러 의견의 적합도, 신뢰도, 설득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로 발생한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타인과 소통하며 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동조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의사결정은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교육부, 2015, p. 46). 여기서 강조하는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고 구성원의 여러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 속에서 ‘동조’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의사결정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이 입장을 바꾸는 동조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이의 민주주의는 성공의 습관을 갖지만 어떤 이의 민주주의는 포기과 만족의 습관을 갖게 된다”(이주연, 2019, p. 81)는 말을 되새기며 동조가 성공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동조와 침묵의 관계

동조는 침묵과 관련이 있다. 두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비슷하게 사용된다. ‘동조하다’라는 말과 ‘침묵하다’라는 말을 떠올려보면, 본심을 숨기며 어떤 의견으로 결정되도록 따르는 상황이나 해야 할 말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 등이 떠오른다. 사전적 의미로 침묵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비밀을 지킴’도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 동조는 개인 내면에서 의견과 태도를 바꾸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동조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 개인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동조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 동조 반응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동조 자체에 대한 내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침묵의 경우, ‘집단의 압력이나 타인의 권위로 인하여 말을 하지 않고 본심을 숨기는 상태’라는 점에서 동조와 관련이 있다.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여러 이유로 침묵하며, 따라서 의사결정에서 침묵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동조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동조 역시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의사결정에서 동조가 나타나는 형태와 상황에 따른 동조의 의미, 침묵 중에서도 동조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경우들을 살펴보겠다.

가. 동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동조는 침묵, 지지하는 말, 지지하는 행동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IV-1]은 동조가 나타나기까지 개인의 입장 변화와 동조의 표현 양식을 보여준다. 흔히 동조가 표현되면 ‘동의’라고 해석하지만, 동조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의 의사결정에서도 상황에 따라 동조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지지하는 말과 행동으로 동조를 보일 때 속으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가지기도 한다. 개인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조할 수 있다. 최종 결정된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해당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경우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보일 것을 염려하여 동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2-⑤, 3-①). 또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본심을 숨기고 동의나 지지를 표현하기도 한다(4-①).

둘째, 개인의 동조가 실제로 동의를 뜻할 수도 있다. 최종 결정된 의견에 실제로 동의하여 동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자신의 의견에 비해 더 많은 장점과 채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의견 쪽으로 동조하기도 했다(1-①, 1-②, 2-①). 또한 본 연구

의 장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사유로 인한 동조에서도 동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무사유의 상태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이 없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지지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치 시각	내면(안)		외면(겉)
	최종 결정된 의견에 대한 기존 입장	→ 최종 결정된 의견에 대한 최종 개인 입장	→ 최종 결정될 때의 표현 양식
긍정적	찬성/ 동의	찬성/ 동의	지지하는 말
부정적	반대/ 비동의	반대/ 비동의	지지하는 행동
무사유	무사유	무사유	침묵

[그림 IV-1] 동조가 일어날 때의 입장 변화와 동조의 표현 양식

주. 기존 입장을 기준으로 찬성/동의(▶), 반대/비동의(●), 무사유(■)로 표시

나. 침묵하면 다 동조인가?

침묵은 동의, 비동의, 찬성, 반대, 무사유 등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진다. 의사결정 상황에서 침묵하면 모두 다 동조라고 볼 수 있을까? 침묵이 모두 동조 반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침묵하지만 동조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를 설명하겠다.

첫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침묵했지만 원래부터 해당 의견을 줄곧 지지하고 동의해 온 경우가 있다. [그림 IV-1]에서 알 수 있듯, 최종 의견에 대해 침묵하며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개인이 최종 결정되는 의견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중간 과정에서 동조하여 최종으로는 동의하는 경우이다(1-①, 1-②, 1-③, 2-①). 이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동조 반응으로 나타난 침묵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의 초반부부터 최종 의견과 같은 의견을 지지해온 경우이다.

의사결정 과정 내내 해당 의견을 지지하지만 개인이 발언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침묵해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의 침묵은 동조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해당 의견을 지지하고 동의한 것이지, 원래 가지고 있던 의견이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처음부터 개인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사유의 상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줄곧 침묵한 경우 동조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의견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조라고 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줄곧 침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무사유의 상태를 의미하는 침묵은 나타나지 않았다. 침묵하는 학생들도 각자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침묵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모호성이 있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비정확성도 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침묵도 동조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쉽다. 침묵을 ‘무사유의 상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주관도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은 침묵하는 학생이 ‘드러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발언을 독촉하며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2-7).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침묵도 동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침묵을 선택하기도 하며(2-4),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개인 스스로 숙고할 때 침묵이 나타나기도 한다(2-2). 집단의 분위기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 표현을 검열하여 발언 빈도를 줄이기도 한다(2-6). 이 외에도 침묵은 원래부터 하나의 의견을 지지해 온 사람의 경우, 소신 있게 제 의견을 유지하는 한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서 ‘침묵’은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의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침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며, 또한 침묵의 시간도 주어야 한다. 침묵은 사색을 통해 문제 상황을 깊게 파고 들고 여러 대안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침묵을 통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의견들의 차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으려 노력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제시된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침묵하며 내면 탐구를 수행하도

록 도와야 한다.

3. 주제에 따른 동조의 경향

동조는 의사결정 해야 할 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6학년 운동회 종목을 정하는 주제에서 1순위 종목을 정할 때와 2순위 종목을 정할 때 학생들의 동조 반응에 차이가 있었다(<표 III-2>, <표 III-3> 참고). 학생들은 다른 학년과 의견이 중복될 경우에 대비해 2순위 종목까지 정해야 했다. 6학년 학생들이 정한 1순위 종목은 다른 학년과 중복될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2순위 종목을 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1순위 종목을 정할 때에는 학생들끼리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한 결과 동조 반응이 나타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하지만 2순위 종목을 정할 때 학생들은 각자가 처음 주장한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하며 다른 의견으로 동조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자기 의견 쪽으로 상대가 동조하기를 바라며 감정에 치우진 근거를 제시하거나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3-②, 3-③). 1순위 종목을 결정할 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2순위 종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인 반응에는 초등학교생들의 의사결정 특성이 잘 나타난다. 학생들은 선택 결과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때, 자기주장과 감정에 치우쳐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동조를 꺼리는 모습을 보인다.

주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 또 다른 사례는 준경이(4-③)와 정혁이(4-⑦)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두 학생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만장일치 된 상황에 놓였다. 준경이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동조했고, 이와 달리 정혁이는 자신의 의견을 계속 주장하여 결국 다른 학생들이 정혁이 의견 쪽으로 동조하도록 했다. 두 학생의 다른 반응은 의사결정 해야 할 주제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다. 준경이의 경우 월 대표를 정하는 주제였는데, 준경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모두가 이전에 이미 월 대표를 한 번씩 경험했다. 이에 비해 정혁이의 경우 학생 경기 대표를 정하는 주제였고, 운동회에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 모두가 원하지 않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된 정혁이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준경이와 달

리 정확이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동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집단 의사결정 주제는 최종 결정된 결과가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나 각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주제에 따라 다른 동조 경향을 보이게 된다.

4. 동조 결과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입장의 변화를 보이며 동조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조한 학생들이 최종 결정된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느끼는지 확인했다. 학생들은 ‘적합한 결과’와 ‘정당한 절차’(Swift, 김비환 역, 2011, p. 142)를 기준으로 삼는 데에서 차이를 보였다.

‘적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자신이 동조한 ‘의견의 내용’에 주목한다. 이 경우 학생들은 최종 결정된 의견이 자신의 의견대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조한 의견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한 경우(3-④, 3-⑤)나 겉으로 침묵했지만 속으로 의견의 내용에 동의하며 동조한 경우(1-①, 1-②) 모두 자신의 의견대로 결정되었다고 해석했다.

다음으로 동조 결과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동조한 의견으로 최종 결정된 ‘절차’에 주목한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에 주목하여 최종 결정된 의견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동조한 의견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접 발언하며 참여했으므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했다(3-⑦). 자신이 의견 내용에 동의하며 동조했더라도 다모임에서 자신이 발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자기 의견이 최종 결정된 의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기도 했다(2-①).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은 각각 다른 판단의 기준으로 반응을 선택하고 결과를 인식한다.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인식에서도 구성원 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적합한 결과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과 모두 집단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의견도 다를 수 있다. 또한 모두의 견해는 동등한 조건으로 집단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V. 결 론

집단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동조는 흔히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동조가 의견이나 소신 없이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D초등학교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동조 사례를 통해 동조에 담긴 의미를 확인하고 동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동조의 의미와 원인, 동조의 표현 양식을 검토했다. 동조는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의견으로 바꾸는 속성을 가진다. 개인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동조한다.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정보로서 활용하여 동조하기도 한다. 비동조를 꺼리는 집단의 분위기로 인해 동조가 일어나기도 한다. 동조는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로 표현된다.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바꾸는 이유나 동조 반응 속에 담긴 동조자의 의도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비언어적 행위에 담긴 동조의 의미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D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동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비교하여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넓힌 결과로서 동조했다. 자신이 가진 정보들을 비교한 결과 새로운 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동조 반응을 보였다.

둘째, 학생들은 최종 의견을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동조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고 판단하면 동조 반응을 보였다.

셋째, 학생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동조하기도 했다.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니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침묵하기도 했다.

넷째, 학생들은 스스로 또래의 눈치를 살피거나, 동조를 원하는 분위기를 직접 느껴 동조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제외한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압력을 느꼈다. 다수의 압력을 받는 개인은 다른 대안을 고려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며 주장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다섯째, 집단의 주 의견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의견을 지지하지만, 전략을 가지고 주 의견에 동조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다른 학생들과 대립 상태를 유지할 경우, 집단 내 개인의 입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략적 동조를 선택하게 된다.

여섯째, 학생들은 다수의 강요로 의견을 정하는 것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의견으로 동조하기도 했다. 항상 다수의 의견으로 동조하는 것은 아니며, 소수 의견을 가진 학생이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곱째, 제시된 의견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동조를 유도하기도 했다. 여러 대안의 결점을 보완하며 제시된 의견의 경우, 학생들이 취약하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의 동조가 나타났다.

여덟째, 절실한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학생들은 쉽게 동조하지 않았다.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 놓이면, 다른 학생의 입장에 따르는 것을 승패의 문제로 여겨 다른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려 했다. 상대의 발언에 트집을 잡거나 고집을 부리기도 하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D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동조 특성은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동조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동조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조를 ‘인식 변화에 따른 선택’과 ‘주체적 판단의 결과’로 바라보면, 동조는 긍정적이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을 비판적으로 해석한 결과 다른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동조한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 동조가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다룰 때, 대화와 타협의 과정 속에서 동조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동조는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동조는 실제로 동의를 뜻하기도 한다. 최종 결정된 의견의 내용에 동의하여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개인은 의견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조할 수 있다. 다른 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의견에 동조하기도 한다.

셋째, 개인의 침묵이 동조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당 의견을 줄곧 지지하고 동의하거나 무사유의 상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침묵한 경우는 동조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묵은 모호성과 비정확성으로 인해 쉽게 부정적으로 해석되지만,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다. 개인 스스로 숙고하며 침묵이 나타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언 빈도를 줄이면서 침묵하게 된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서 침묵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이 침묵하는 동안 사색을 통해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며 내면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의사결정 해야 할 주제에 따라 동조는 다르게 나타난다. 집단 의사결정 주제는 최종 결정된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나 각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주제에 따라 다른 동조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조한 학생들은 적합한 결과나 정당한 절차를 기준으로 삼으며 동조 결과를 다르게 판단한다. 적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자신이 동조한 '의견의 내용'에 주목한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최종 의견을 정하는 '절차'에 주목한다.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의견도 각자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최종 결정된 의견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조건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최종 의견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조를 분석하여 동조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의사결정 장면을 녹음한 후 전사한 내용과 학생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동조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동조의 특성 상 개인의 입장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동조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연구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 내면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보완하여 동조 분석에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 개인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동조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중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교사들과 학생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을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준만. (2017). **소통의 무기**. 고양: 개마고원.
- 고훈석. (2009). 논쟁 중심 협동학습모형 적용을 통한 학생들의 집단 의사결정과정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17(4), 19-34.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 권혁남. (2017). 지각된 의견분위기와 의견표명 의사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언론과학연구**, 17(3), 5-36.
- 권혁남. (2018). 이슈 특성과 지각된 의견분위기 상황에 따른 침묵의 나선효과. **사회과학연구**, 29(4), 61-82.
- 김금미, 한덕웅. (1997).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규칙에 따른 사회적 영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41-55.
- 김인택. (2011). 의사소통 과정에서 ‘침묵’행위의 사회·문화론적 해석. **코기토**, 69, 451-483.
- 나은영. (1995).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체면과 동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33-51.
- 나은영. (2015).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 박재현. (2016).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과주: 사회평론아카데미.
- 배진숙. (2009). 초등학생의 의사결정 과정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변상호. (2015).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다수의 영향력 지각에 대한 비판적 고찰-삼자 의사표현 위축 추정과 일자 의사표현 위축 간 영향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5), 139-176.
- 서현석. (2005). 학생 소집단 대화의 ‘협의’ 양상-의사결정 과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2, 159-186.
- 소원근. (2011). 집단구성원의 기분이 집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 연구-중국 및 동아시아 문화권의 집단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중국학**, 39, 149-180.
- 신재한. (2009). 학습자 성격 유형별 집단 구성에 따른 초등학생의 온라인 토론 참

- 여 양상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2(2), 27-47.
- 신흥임. (2017). 심리적 거리와 의사결정: 집단규범에의 동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103-123.
- 오연주. (2010). 공공쟁점 중심 사회과 토론수업에서 학생들은 왜 말하지 않는가?. **사회과교육**, 49(2), 121-136.
- 이경무. (201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참여학습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나은. (2008). 청소년의 또래압력이 또래동조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미. (2008). 초등학생의 공감 및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집단따돌림 동조유형의 차이연구.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민. (2008). 초등학생의 교실침묵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태. (2016). 또래 압력이 인지적 왜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중재 요인으로서 도덕적 정체성. **윤리연구**, 111, 305-334.
- 이주연. (2019). 민주주의 실행하기: 감귤초등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례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채린, 김세현, 허태균. (2015). 무언은 무념일까: 침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언어학**, 27(1), 199-226.
- 장대익. (2017). **울트라 소셜 :사피엔스에 새겨진 '초사회성'의 비밀=Ultra sociality**. 서울: 휴머니스트.
- 장영희. (2006). 침묵의 유형과 교육적 의의. **화법연구**, 9, 43-68.
- 전희욱. (2007). 사회과교육과정 '의사결정' 내용요소의 적용방향. **사회과교육연구**, 14(2), 139-160.
- 정다운, 정성은. (2018).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가? -논쟁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 결정요인으로서의 동의 가능성 지각과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한국언론학보**, 62(1), 98-128.
- 정란. (2003).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가 참여도와 토론 메시지 내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 조공호, 김은진. (2001). 문화 성향과 동조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주성욱. (2007).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견과 집단의 문제-사회심리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은주. (2009). 학습자들의 또래 관계가 사회과 토론 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규석. (2013).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세영. (2009). 아동과 청소년의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8), 119-130.
- 홍성철. (2020). 문화적 차이에 따른 침묵의 나선 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3), 286-297.
- いけだ きよひこ. (2018). **소수의견을 외치는 당신이 세상을 바꾼다**(이정은 역). 서울: 홍익출판사. (원저 2015 출판)
- Aronson, E. (2014). **인간, 사회적 동물**(박재호 역). 서울: 탐구당. (원저 1972 출판)
- Asch, S. 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70(9), 1-70
- Bond, M. (2015). **타인의 영향력: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나에게 스며드는가**(문희경 역). 서울: 어크로스. (원저 2014 출판)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3 출판)
- Delouee, S. (2014).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럴듯한 착각들**(문신원 역). 서울: 지식채널 (원저 2011 출판)
- Forsyth, D. R. (2015). **집단역학**(남기덕 외 역). 서울: 세계이치러닝코리아. (원저 1990 출판)
- Illich, I. (2013).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권루시안 역). 서울: 느린 걸음. (원저 1992 출판)
- Lees, H. E. (2019). **학교에서의 침묵의 긍정성 - 조용하게 잠시 멈추기**(안

- 찬성 역). 서울: 밥북. (원저 2012 출판)
- Morris, W. N. and Miller, R. S. (1975). The effects of consensus-breaking and consensus-preempting partners on reduction in conform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215-223.
- Petress, K. (2001). The ethics of student classroom silence.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28(2), 104-107.
- Rosenberg, T. (2012). **또래압력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가**(이종호 역).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원저 2011 출판)
- Sommers, S. (2013).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가: 우리의 감정, 행동, 결정을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임현경 역). 서울: 청림출판 (원저 2011 출판)
- Swift, A. (2011). **정치적 생각**(김비환 역). 고양: 개마고원. (원저 2006 출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n.d). '동조'. [<https://stdict.korean.go.kr/>](2020.06.0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n.d). '침묵'. [<https://stdict.korean.go.kr/>](2020.06.01.)

A B S T R A C T * 4)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oup Decision Making and Conformity

Kim, Da Won

Major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Ryu, Hyun Jong

This study studied the aspects of conformity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show meanings of conformit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 case of group decision-making of 6 grade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 were used to analyze the aspects of conformity to derive suggestions on how to understand it.

The patterns of conformity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shown as follows. First, a conformity was shown as the result of expansion of informations. Second, students followed majority opinion because they judged it as 'a fair decision.' Third, students kept silent when they felt diffident. Fourth, peer pressure lead to unwanted consequences when taken seriously. Fifth, student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August, 2020

who have a strategy followed other opinion though they disagreed on it. Sixth, students considered the minority opinions as the way of respecting students who have them instead of giving pressure to change their opinions. Seventh, students suggested new alternatives to compensate the defects. Eighth, subjects of decision-making affected students' decision-making.

Th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conformit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possibility to be being interpreted in positive meaning. As 'a choice after changes of cognition' and 'a result of subjective judgement', the conformity has positive aspects. Second, conformity has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the decision-making situation. Third, some silence does not mean conformity. When silence appears as a result of agreement from the first or as unthoughtfulness in decision-making process, it does not mean conformity.

The study analyzed examples of elementary students' group decision-making process and showed the reasons why various conformities occur and their meaning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 hope these findings will give teachers and students ideas of respecting each others and standing in someone's shoes.

*Key Word: Group decision-making, Conformity, Silence,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Minority opinion

부 록

[부록 1] IRB 승인서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Page 1 of 2

결과통지서

2019년 04월 19일에 접수된 연구계획서(신규)에 대하여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2019-015
연구과제명	집단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생들의 동조 현상 분석
책임연구자	성명 : 김다원 소속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직위 :

심사대상	<input checked="" type="radio"/> 연구계획서(신규) <input type="radio"/> 연구계획서(시정/보완) <input type="radio"/> 연구계획변경 <input type="radio"/> 지속심사/중간보고 <input type="radio"/> 중대한 이상반응 <input type="radio"/> 위반/이탈사례 <input type="radio"/> 연구(조기)종료/결과보고 <input type="radio"/> 기타:		
심사일자	2019-05-09	심사장소	제주대학교
심사종류	경규심사		
심사결과	<input checked="" type="radio"/> 승인 <input type="radio"/> 조건 부 승인 <input type="radio"/> 보완 후 재심의 <input type="radio"/> 불결		
승인일자	2019-05-09	승인 유효기간	2020-02-29
승인번호	JNU-IRB-2019-015		
심사의견	1. 심의 결과 : 승인 2. 심의 의견 - 연구계획서 요약에 연구대상자에 취약한 피험자 문구 추가바랍니다. -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의 연구설명 부분에 전체 연구 종료 후 자료보관 및 폐기관련 부분 추가 서술 후 수정 제출바랍니다. 3. 아래의 연구자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된 서류	- 연구계획서 요약 - 연구계획서(IRB 심의용) - 피험자 설명서 및 동의서 혹은 동의서 연계 사유서 - 이해상충공개서 -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 연구책임자 경력사항 - 지도교수 서약서(연구책임자가 학생인 경우)		

※ 모든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2)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로 인종된 번역본을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동의서 번역본은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상황에서의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5) 위원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등록된 어떠한 연구대상자라도 사망, 입원,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6) 연구 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https://irb.jeju.ac.kr/mypage/pop_notice01.htm?&mode=view&ed_no=277

2019-05-10

- 7)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위원회가 심사한 과제에 대해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시 원활한 점검절차 진행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 9) 연구대상자 모집광고를 사용할 시에는 사용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 동의는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참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11) 연구자와 그밖에 이해당사자는 연구계획서 승인을 광고나 홍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2) 공동위원회의 심사결과 시장요구에 대해 모두 이행 및 충족될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3) 공동위원회가 시장 및 보안을 요구한 경우 시장·보안 계획을 1개월 이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보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14) 시장계획은 신속심사로 진행되고 보안계획은 정규심사로 진행되며, 승인일과 승인 유효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15) 승인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승인 만료 2개월 전까지 연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16)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17)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장



본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은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본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사에서 배제합니다.
 본 통지서의 사본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합니다.